

페이즈랜드 창작 동화

1. 마법의 나라로 떠나는 방법과 악몽에서 벗어나기
2. 지하감옥에서 공룡 루드르 구하기, 그리고 마법의 순간
3. 수퍼히어로가 되는 방법과 여자애들과 화해하는 방법
4. 비행 접시를 타고 떠나는 우주 여행과 외계인 납치 사건
5. 무시무시한 묘지로 떠나는 모험과 비밀의 장소
6. 위험한 스포츠카 경주대회와 다시 돌아온 아스트라
7. 신비로운 해저모험과 바다 속 괴물과의 한판 승부
8. 동물로 변신하기, 그리고 늑대와의 한판 승부
9. 타임머신 여행과 파라오왕의 비밀
10. 사악한 드래곤과의 마법같은 한판 승부, 그리고 아스트라와의 우정



1

페이즈랜드 창작 동화

마법의 나라로 떠나는 방법과
악몽에서 벗어나기

(취침 전 추천 도서)

Michael Raduga 원작

Suki Park 번역

Andrey Goodkov 삽화

동화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한 작은 마을에 ‘페이즈’라는 착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만화책과 사탕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노는 게 마냥 좋아, 집에 가는 것도 까맣게 잊곤 합니다. 물론, 어디 있는지 찾기만 하면 말이죠! 이때마다 착한 엄마는 길거리에 나와 페이즈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시곤 하십니다.

“페이즈, 빨리 집에 오렴!”

“여기 없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직장에 있어요.”

“직장이라니? 직장은 내가 다니는데. 녀석한테 오트밀 두 그릇을 차려주느라고 오늘 아침에도 지각까지 했는데 말이야. 페이즈, 빨리 집에 들어와!”

동네 모퉁이에서 까르르 웃음 소리가 터집니다. 친구들 모두 페이즈가 아침마다 오트밀 먹는 걸 좋아하는 걸 아니까요. 페이즈는 마지못해 서둘러 집으로 달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민거리만 빼면, 페이지의 하루하루는 그저 완벽했을 텐데요. 아무도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과연 페이지의 고민거리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밤마다 무서운 털복숭이 드래곤이 나타나는 악몽이었습니다. 커다란 드래곤이 겁을 주고 페이지를 물으려고 달려 들었고, 사실 전날 밤 불쾌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페이지는 꿈 속에서 거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조종대의 방향을 예리하게 틀고, 흥얼 거리면서 빙하 사이를 부드럽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나가신다. 조심해, 펠리컨! 선장이 나가신다. 조심해, 펠리컨!”

순간 배는 갑자기 바위섬에 부딪혔고, 배를 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동굴에서 드래곤이 나와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얌얌... 오트밀을 먹고 자란 선장은 맛있다더군!”

페이지는 드래곤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괴물은 밤새 페이지를 쫓아 섬을 헤매다냈고, 페이지는 잠을 한 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어, 연 날리기에 최고의 날씨였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들이 마당에 모여 일찍부터 페이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시무룩 한거니?” 긴 머리의 착한 소녀 아스트라가 묻습니다.

“잠을 잘 못 잤어. 꿈 속에서 무서운 드래곤이 계속 쫓아왔어. 한 번은 뒤에서 나를 물었는데, 많이 아팠어.”

“어머나!” 아스트라가 말합니다.

“그래서 앉지도 못하겠네?” 다른 소년 오비가 비웃다가, 한 대 세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친구들은 들판에 도착해 연을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는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페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가 안돼?”

“드래곤을 물리치기 어렵다는 거 몰라?”





“아스트라, 하지만 꿈 속인데 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거짓말쟁이!”라고 오비가 소리칩니다.

“난 잠자리에 들 때, 나한테 이렇게 말해”라고 아스트라는 페이지에게 설명합니다. “무서운 꿈을 꾸게 되면 그건 단지 꿈이라는 걸 꼭 기억하렴. 꿈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성난 늑대도 귀여운 강아지로 만들어서 같이 놀수 있어.”

그때 스파가 등장합니다. 옆 동네에 사는 덩수룩한 머리를 한 못된 녀석입니다. 스파는 페이지랑 페이지 친구들보다 나이가 한살 반 더 많았고, 스스로 터프 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스트라, 아직도 이 꼬맹이들하고 노는 거니? 나랑 같이 가자. 새 자전거 보여줄게.”

“우와, 새 자전거! 빨간색이야?”

아스트라의 얼굴을 환하게 밝아졌고, 페이지랑 오비한테 인사도 없이 스파와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페이즈는 그날 저녁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하늘에 띄운 연은 오랫동안 높이 날아 기뻐지만, 아스트라도 가버리고 나머지 꼬맹이들만 함께 남았습니다. 짜증나고 운도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스트라가 한 말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장난감 자동차 놀이를 하고 난 후, 페이즈는 악몽 속 드래곤과 한판 승부를 벌일 다짐을 하고 꿈나라로 떠났습니다.

밤새 희안한 꿈나라를 헤매는 페이즈. 로켓 우주선에 오르는 순간, 무시무시한 털복숭이 자주색 드래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꼬맹이, 널 잡아먹을테다!” 드래곤은 으르렁거리며 페이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스트라가 한 말을 기억했어야 하는데, 그만 드래곤을 처치하지 못하고 잡혀먹지 않으려고 다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밤도 실패였어요.





페이즈는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지 못해 속상했지만, 다음날 저녁때는 더욱 굳게 다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오늘밤은 못된 드래곤하고 싸워야 하니까, 힘이 더 필요해요!”

“우리 용감한 아드님!” 엄마는 저녁 밥을 두배로 담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꿈 속에서 높은 건물을 짓고 있는 사이, 드래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무언가 기억해 내려고 머리를 쥐어 짜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호…꼬맹이 다시 만났군. 저녁 먹이감을 구하려던 차에 잘 됐다!” 겁에 잔뜩 질린 페이즈는 이 모든게 단지 악몽일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무서운 털복숭이 자주색 드래곤을 피해 도망치자, 드래곤은 더 바짝 뒤쫓아왔습니다.





드래곤과의 한판 승부에서 이렇게 또 실패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더욱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페이지는 꿈 속에서 기사가 되어 말을 타고 성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으르렁 소리와 함께 드래곤이 페이지를 향해 불을 뿜으며 날아 들었습니다.

기사로 변신한 페이지는 성문 앞에 도착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성문이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무척 두려웠지만, 그 순간 자신은 실제로 기사도 아니고, 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습니다.

“이건 꿈이야!”라고 외치며 기쁘게 울먹였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건 내가 원하는대로 될거야.”

“꼬맹이, 과연 그럴까?” 드래곤은 으르렁대며 비웃었습니다. “넌 내 밥이야!”

“아스트라가 속임수를 걸었어!” 페이지는 최악의 순간을 준비하면서 간신히 속삭입니다.





그 순간 페이스는 이 모든 게 꿈이라면 원하대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이걸 받아!”

페이스는 마음의 힘 만으로 무시무시한 털복숭이 자주색 드래곤을 또래 아이 만큼 작게 만들고, 칼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래곤 따위는 더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나려고 했어요.

“난 어린아이일 뿐이야. 내 이름은 루드르. 널 겁주고 싶었어.”

“흠, 이젠 그렇게 못할 걸!” 페이스는 커다란 미소와 함께 칼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선물을 어떻게 할거지?”

“선물?” 페이스가 물었습니다.

“너한테 이 왕국을 전부 주겠어. 페이스랜드 왕국을 말야. 긴장 풀어, 내가 보여줄 테니!”

페이스는 이런 제안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왕국 전체를 선물로 받는 행운이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페이스는 드래곤 ‘루드르’의 털복숭이 등에 올라타고, 이 둘은 거대한 페이스랜드 왕국을 훨훨 날아 다녔습니다.





친구가 된 이 둘은 아무리 날아 다녀도,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페이즈랜드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 넓디 넓은 왕국에는 없는 게 없어뇨. 오토밀로 가득한 호수도 있을 정도니까요.

하늘이 곧 볼로 변하고, 무시무시한 으르렁 소리가 울려 퍼지자 루드르는 겁에 떨어졌습니다.

“오오오, 무서워! 여기서 도망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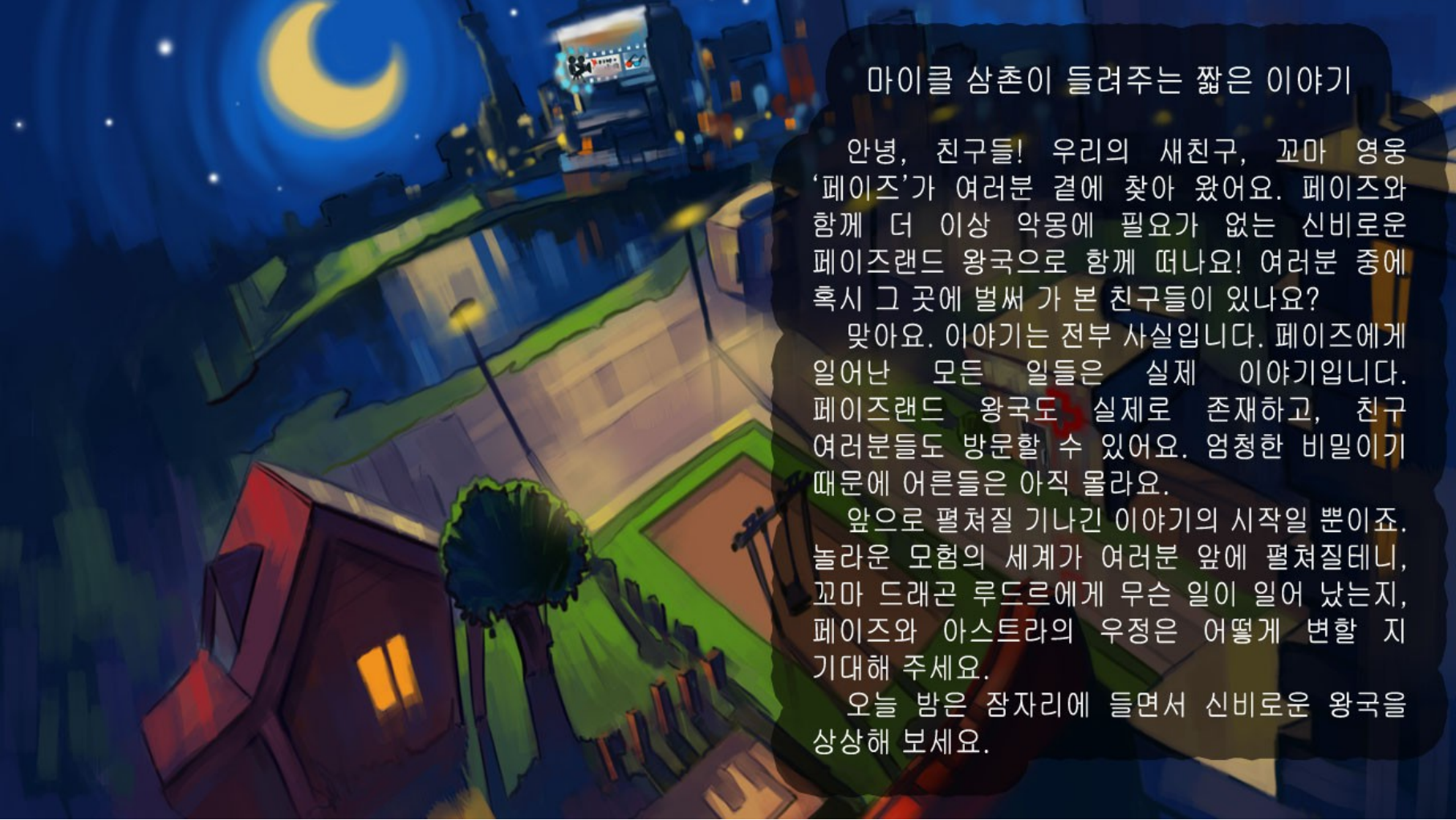
“무슨 일이지?”

“날 꼭 구해줘…”라는 말과 함께 작은 드래곤은 페이즈를 등에서 내려 침대에 데려다 주고 작은 비명 소리와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페이즈는 이 새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꼭 사실을 밝혀내서 친구를 돕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 들었습니다.

이제 꿈나라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페이즈는 기쁘고 행복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아스트라와 오비에게 꿈 이야기를 어서 빨리 들려주려고 서둘러 찾아갔습니다.





마이크 삼촌이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

안녕, 친구들! 우리의 새친구, 꼬마 영웅 '페이즈'가 여러분 곁에 찾아 왔어요. 페이즈와 함께 더 이상 악몽에 필요가 없는 신비로운 페이즈랜드 왕국으로 함께 떠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 곳에 벌써 가 본 친구들이 있나요?

맞아요. 이야기는 전부 사실입니다. 페이즈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페이즈랜드 왕국도 실제로 존재하고, 친구 여러분들도 방문할 수 있어요. 엄청난 비밀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아직 몰라요.

앞으로 펼쳐질 기나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죠. 놀라운 모험의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테니, 꼬마 드래곤 루드르에게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페이즈와 아스트라의 우정은 어떻게 변할 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 밤은 잠자리에 들면서 신비로운 왕국을 상상해 보세요.



총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도서 주문

amazon.com®

기부

PayPal



3일만에 체험하는 자각몽 및 유체이탈 경험



WWW.OBE4U.COM/KR/

An illustration of a young boy with spiky white hair and large blue eyes, wearing a red shirt and blue overalls. He is leaning out of the window of a large, orange steam locomotive, holding onto a yellow rope. The locomotive is moving through a dark, blue, hazy landscape with smoke rising from its chimney. The scene is lit with warm orange and yellow light from the train's engine and a lantern hanging from the side.

2

페이스랜드 창작 동화

지하감옥에서 공룡 루드르
구하기, 그리고 마법의 순간

(취침 전 추천 도서)

Michael Raduga 원작

Suki Park 번역

Andrey Goodkov 삽화

동화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페이즈는 더이상 잠에 드는게 두렵지 않아 행복했습니다. 맛있는 오트밀과 친구들과 함께 거니는 것만큼, 오랫동안 폭 잠을 자는 것도 좋았습니다. 물론, 아무도 꼬마 드래곤 루드르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요.

“오트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상해 진거 아냐?” 함께 숲속에서 요새를 만들던 오비가 말했습니다.

“아냐, 전부 사실이야!” 아스트라가 친구를 위해 말해줍니다. “페이즈, 내 말이 맞지?”

“난 전부 알고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널 도와준거야. 맞지?”

다른 남자애들과 마찬가지로 페이즈도 여자애한테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지만, 마음 속으로는 아스트라가 고마웠어요.

페이즈는 이틀 내내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불쌍한 꼬마 드래곤 친구를 거의 잊고 있었는데, 다음날 밤 갑자기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페이즈는 꿈 속에서 지하 기차를 운전하며, 석탄을 기차 보일러실에 나르고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 루드르가 갑자기 보일러실에서 튀어 나와, 숲으로 가득 뒤덮인 채로 울부짖었습니다.

“날 구해줘! 파우가 나한테 벌을 내리고 있어.”

“파우? 파우가 누구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신을 차린 페이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드래곤 왕이야! 화가 잔뜩 났는데, 나 때문에 더 화가 났어. 우리 드래곤들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 근데, 내가 널 도와줬잖아.” 루드르는 울먹었습니다.

“너한테 무슨 짓을 했지?”

“지하감옥에 있는 화산 구멍에 날 가뒀어. 날 좀 구해줘. 안 그럼, 널 다시 못 보게 될거야!” 루드르가 이렇게 간신히 말을 하자, 갑자기 커다랗고 날카로운 발톱이 루드르를 다시 불구덩이로 잡아 당겼습니다. 페이즈는 꼬마 드래곤을 당연히 구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깨우시는 바람에 잠에서 깹습니다. 그 사이 이미 날을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그날, 페이즈는 숲속 요새에 친구들을 모아 놓고, 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오비는 역시 믿지 않았고, 놀리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속상한 아스트라는 한숨을 쉬면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불쌍한 꼬마 루드르! 너가 구해 줄거지?”

“근데, 루드르 없이 나 혼자 페이즈랜드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지?”

“마법의 순간을 들어본 적 있어?” 아스트라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지 알려줄까?”

“나도 알아…지금 기억이 안 날 뿐이야.”라고 페이즈는 자신 있는 듯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날 때, 마법의 순간이 있어. 그 순간 눈을 뜨지 말고, 바로 그 장소에 즉시 가 있는 시도를 해봐. 만약 잘 안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돌리고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몸을 공중에 띄워 봐. 난 이렇게 해서 항상 성공하거든.”

아스트라는 페이즈에게 몸을 띄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웃겨서 페이즈와 오비는 그만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년들은 예민한 아스트라의 맘을 상하게 했고, 아스트라는 입술을 오므리며 울음을 터뜨리려고 했습니다. 페이지가 사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요새 벽 밖에서 무언가 바스락 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시무시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꼬마 돼지, 어디 숨어 있었니?” 스파가 소리쳤습니다. “너희 요새를 다 부숴버릴테다!”

주위를 살펴보니 스파와 그 옆에 친구 두 명이 막대와 돌로 요새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스트라가 앞으로 나가 판지로 만든 요새 문을 찢고 스파의 못된 친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멍청이들아! 이걸 받아. 난 이제 너희들하고 안 놀거야!” 아스트라는 스파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정신 없이 요새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와 오비는 있는 힘껏 요새를 지키려고 애썼지만, 나이 많은 애들 앞에서 꿈쩍도 할 수 없었습니다.





페이지는 상처와 멍 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왔고, 엄마한테 꾸중까지 들었습니다.

“진흙탕에서 뒹굴다 왔니? 빨래하는 것도 지겹단다!”

엄마한테 숲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페이지는 속상한 마음으로 흙을 털고 상처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는 동안 루드르를 구할 계획을 생각해봤습니다.

페이지는 잠에 들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그 마법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상상해 봅니다. 한밤중에 깨어나자마자, 루드르와 함께 있는 상상을 해봤지만, 아무리 시도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공중에 띄우는 시도를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서 있는 자세로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용이 없고, 다음 번 잠에서 깨어날 때 시도해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불쌍한 친구를 꼭 구해야만 하니까요.





아침이 다 되서야 잠에서 깨어난 페이즈. 꿈이 너무 생생한 나머지 잠에서 깨어나는 마법의 순간을 기억할 정도였지만, 재빨리 기억해 낸 후 다시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루드르 옆에 가 있는 시도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공중에 띄우는 시도를 하는데, 원하는 대로 즉시 성공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고 특이한 나머지 겁에 질려 그만 다시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든 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서야 아스트라의 말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꼬마 드래곤 루드르를 찾아가 구출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너무 기쁜 페이즈는 부엌으로 달려가 사과 주스를 마시고, 다음 번 의식이 깨어난 상태에서 페이즈랜드에 도착하기로 결심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시 잠에서 깬을 때 이미 한낮이었고, 루드르 옆에 나타나기 위해 열심히 시도했습니다. 계속 시도한 결과 어느 정도 성공한 듯 했는데… 이미 그 동굴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와! 해냈어!” 놀란 페이지스는 소리쳤습니다.

모퉁이 주변을 살피자, 불타는 용암 호수가 보였고, 호수 한 가운데에 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 한 복판에 사슬에 묶인 채로 지친 루드르가 앉아 있었습니다.

“만세! 네가 왔구나! 날 구해줘…”

“잠깐!”

페이지스는 급히 달려가 끓어 오르는 용암을 날렵하게 건너 뛰었습니다. 돌맹이로 사슬을 내려 치기 시작했습니다. 루드르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순간, 갑자기 용암이 부글부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드래곤이 귀가 떨어져 나갈 듯한 고향을 지르며 용암에서 나타났고, 그 뒤로 작은 드래곤 무리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주변은 너무 뜨겁고 무시무시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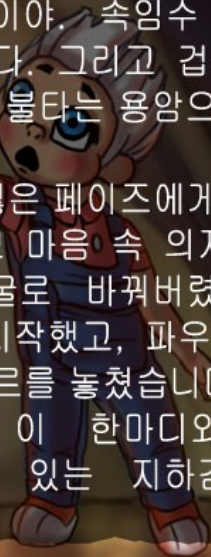
사악한 포우와 그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봐, 꼬마, 산 채로 불타기 전에 얼른 나오지 그래.”

“친구를 버릴 순 없어!” 페이지는 모든 용들을 조그맣게 만들려고 시도하며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음만 당했습니다.

“하하하, 우리 어르신들이야. 속임수 따위는 어림없어!” 파우가 고함칩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루드르를 발톱으로 집어 들고 불타는 용암으로 끌고 갔습니다.

친구를 구할 희망을 거의 잃은 페이지에게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 의지만으로 불타는 동굴을 차가운 동굴로 바꿔버렸습니다. 대성공!!! 드래곤들은 떨기 시작했고, 파우는 몸을 녹이려다 그만 발톱에서 루드르를 놓쳤습니다.

“반드시 복수할테다...” 이 한마디와 함께 털복숭이 자주색 루드르가 있는 지하감옥에서 도망쳐 날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고양이, 강아지, 꼬마 드래곤은 모두 털복숭이들이라,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저 악당들을 피해 어디에 숨어야 할지 알았어.” 루드르는 눈이 쌓인 커다란 산 꼭대기 모닥불가에 앉아 기쁨에 파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편안하게 웅기종기 앉아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알게된 사실이지만, 페이즈랜드의 모든 눈더미마다 아이스크림이 가득했습니다.

“넌 아스트라가 좋니?” 루드르가 난데 없이 묻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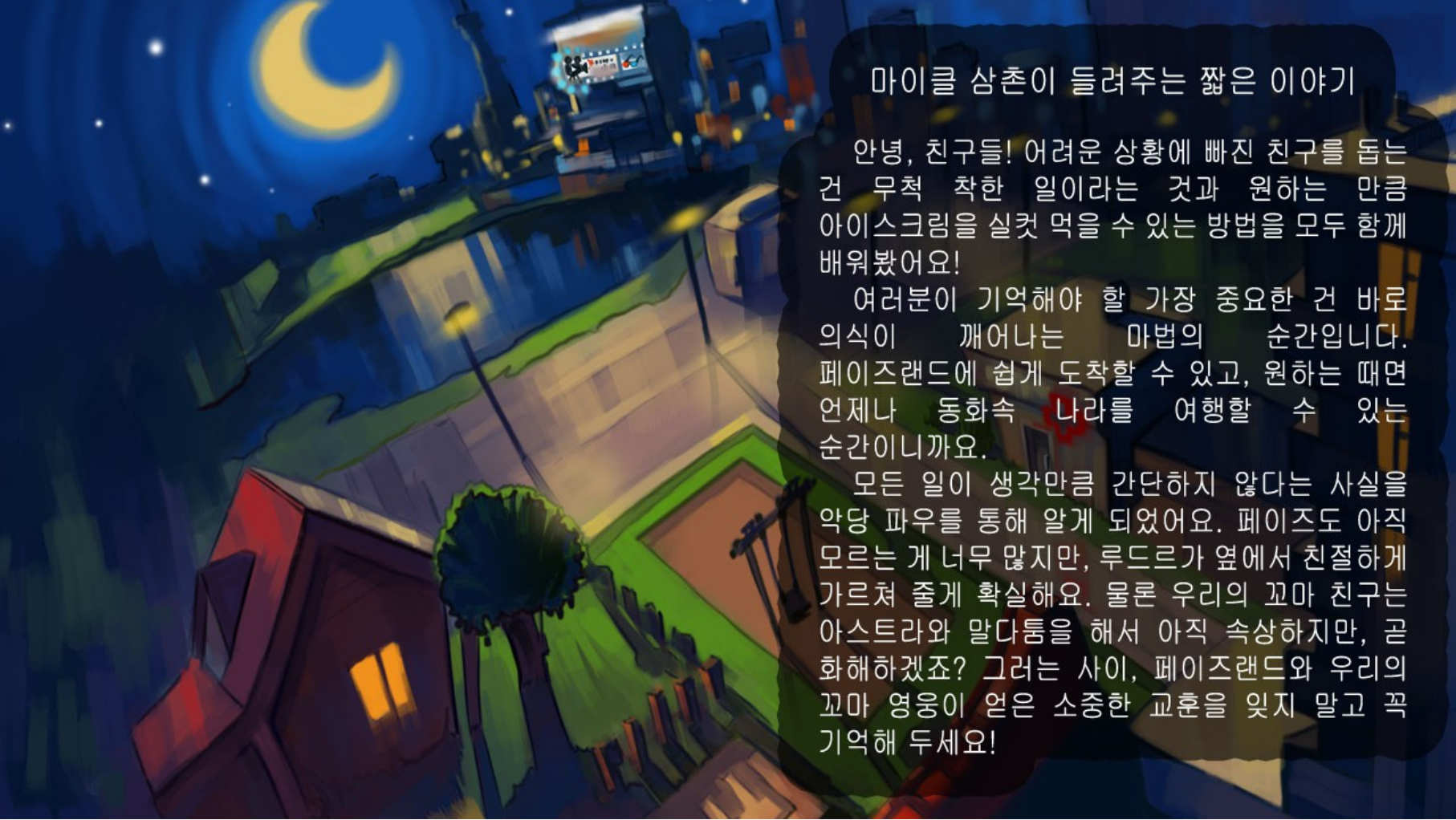
“누구? 아스트라? 아니, 싫어!”

“아스트라랑 다시 친해지게 도와줄게.”

“난 바보인가봐, 근데 다시 친해지고 싶어.”

하지만 우정은 우정일 뿐. 결국 루드르는 페이즈에게 여자애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행복하게 잠에서 깬 페이즈는,オート밀을 먹어서 루드르의 조언을 실천할 방법을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삼촌이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

안녕, 친구들! 어려운 상황에 빠진 친구를 돕는 건 무척 착한 일이라는 것과 원하는 만큼 아이스크림을 실컷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함께 배워봤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의식이 깨어나는 마법의 순간입니다. 페이즈랜드에 쉽게 도착할 수 있고, 원하는 때면 언제나 동화속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순간이니깐요.

모든 일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악당 파우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페이즈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루드르가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줄게 확실해요. 물론 우리의 꼬마 친구는 아스트라와 말다툼을 해서 아직 속상하지만, 곧 화해하겠죠? 그러는 사이, 페이즈랜드와 우리의 꼬마 영웅이 얻은 소중한 교훈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세요!



총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도서 주문

amazon.com®

기부

PayPal



3일만에 체험하는 자각몽 및 유체이탈 경험



WWW.OBE4U.COM/KR/



3

페이즈랜드 창작 동화

수퍼히어로가 되는 방법과
여자애들과 화해하는 방법

(취침 전 추천 도서)

Michael Raduga 원작

Suki Park 번역

Andrey Goodkov 삽화

동화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페이즈는 아침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온 영화가 드디어 나왔기 때문이죠.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마음의 힘만으로 물건을 움직이고 변신시키는 수퍼히어로에 대한 영화입니다. 게다가 고맙게도 엄마가 벌써 영화표를 사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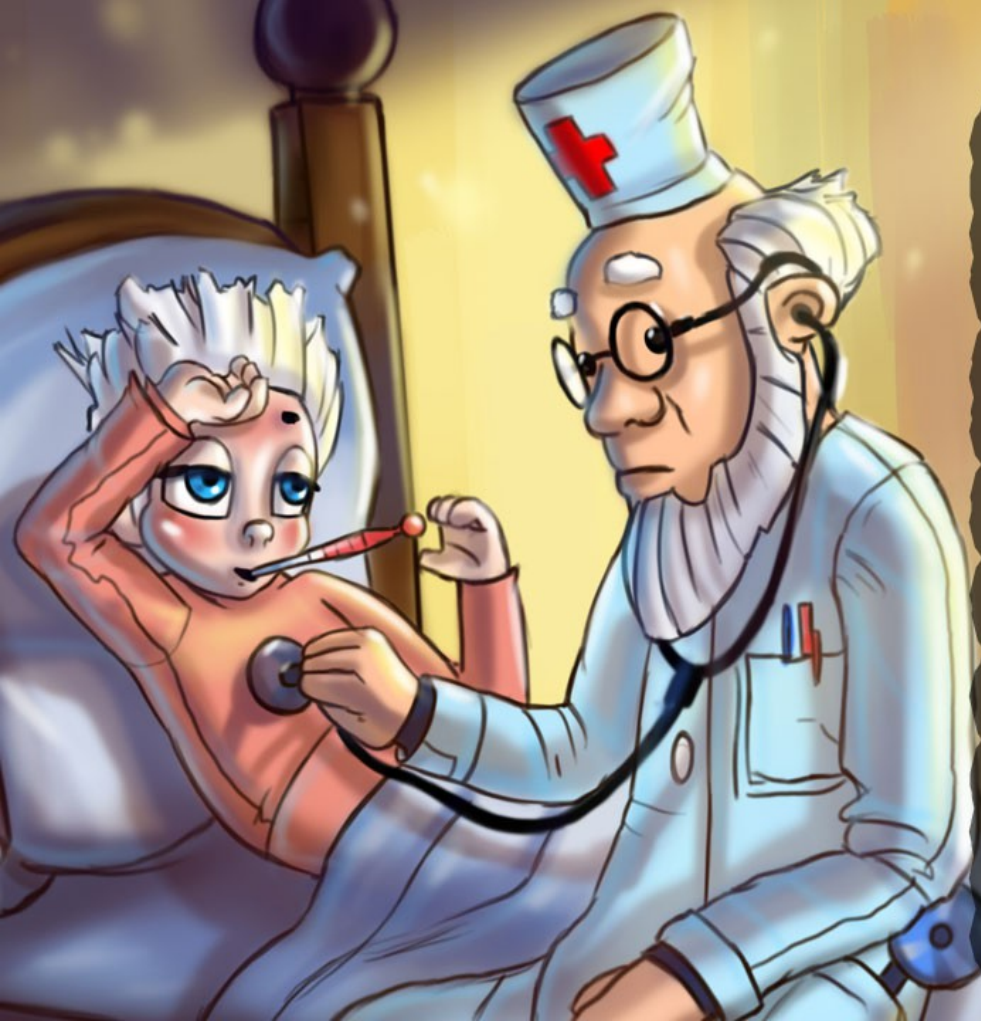
“그런데, 누구랑 같이 가지?” 오트밀을 맛있게 먹던 페이즈가 묻습니다.

“아스트라, 오비 부모님하고 함께 표를 샀으니까, 다들 함께 가면 된단다.”

이 소식에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꼬마 드래곤 루드르가 좋은 방법을 알려주었으니, 극장에서 아스트라와 꼭 화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늘 생겨나는 법. 그 때문에 페이즈는 이 큰 계획들을 그만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열이 나고, 목까지 아파지고 코까지 심하게 골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내내 누워서 쉬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에 울고 싶었지만, 진짜 사나이가 되기 위해 꼭꼭 참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친 페이즈는 꿈 속에서 루드르와 비슷한 자주빛 털을 보고, 페이즈랜드에 와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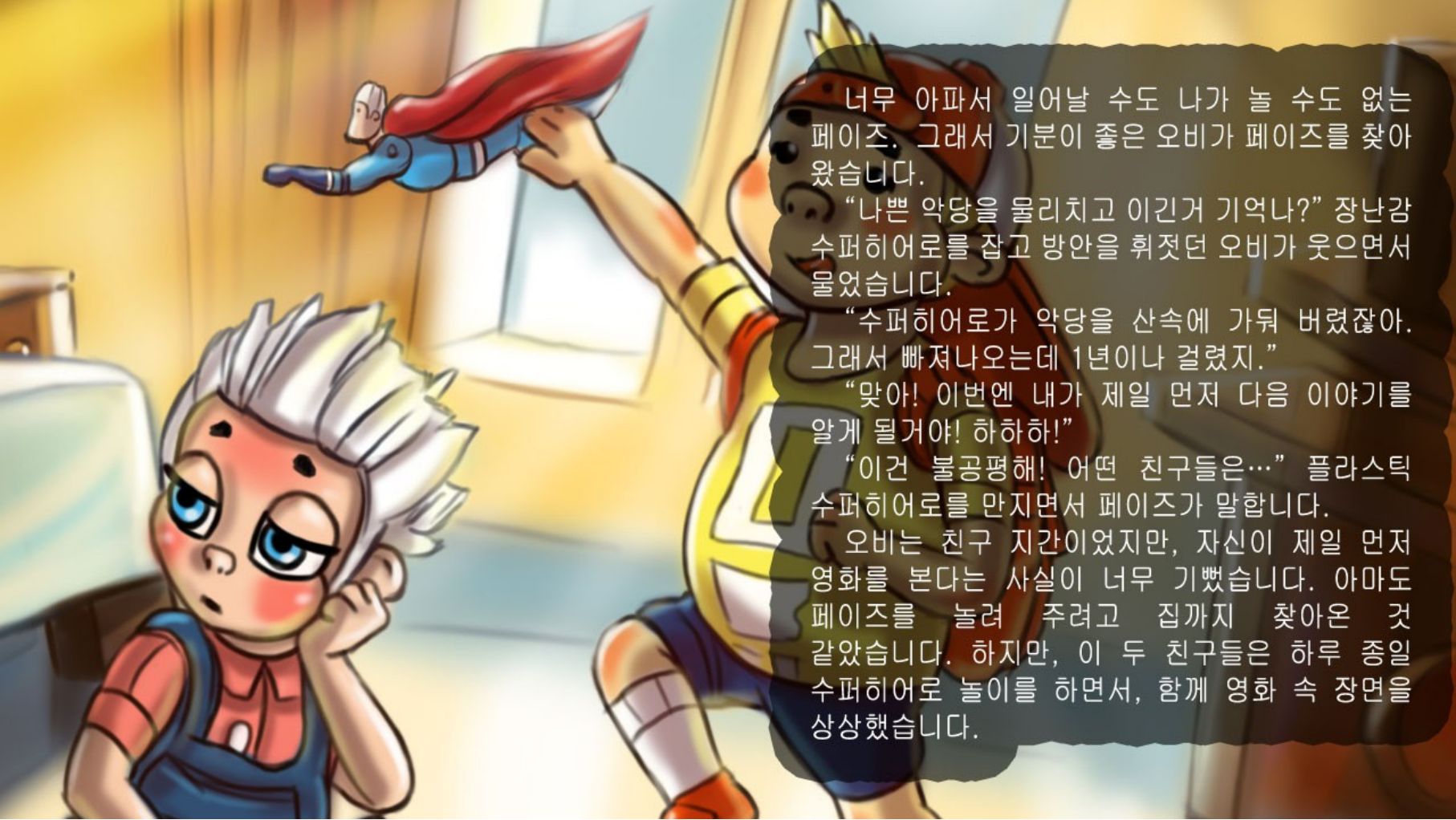
“오호…페이즈론 약을 먹어야 해.” 루드르는 페이즈의 현재 상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나아질까? 약을 어디서 구할 수 있지?”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페이즈가 묻습니다.

“말해줄 수는 있지만, 파우를 다시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

마치 힌트라도 주는 듯 하늘이 금새 불로 변했고, 드래곤들의 으르렁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루드르는 재빨리 눈덮인 산으로 숨었고, 페이즈는 자신이 페이즈랜드에 와 있는 사실도 잊은 채 빨리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도 나가 놀 수도 없는
페이지. 그래서 기분이 좋은 오비가 페이지를 찾아
왔습니다.

“나쁜 악당을 물리치고 이긴거 기억나?” 장난감
수퍼히어로를 잡고 방안을 휘젓던 오비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수퍼히어로가 악당을 산속에 가둬 버렸잖아.
그래서 빠져나오는데 1년이나 걸렸지.”

“맞아! 이번엔 내가 제일 먼저 다음 이야기를
알게 될거야! 하하하!”

“이건 불공평해! 어떤 친구들은...” 플라스틱
수퍼히어로를 만지면서 페이지가 말합니다.

오비는 친구 지간이었지만, 자신이 제일 먼저
영화를 본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마도
페이지를 놀려 주려고 집까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친구들은 하루 종일
수퍼히어로 놀이를 하면서, 함께 영화 속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페이즈는 페이즈랜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오비는 비웃을 것이 뻔했습니다. 페이즈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오직 아스트라 뿐. 그런 생각을 하자 아스트라가 더 보고 싶었지만, 원하는 대로 빨리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오셔서, 무슨 이유인지 오비를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셨습니다. 약을 먹을 시간이 되자, 페이즈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페이즈론 약 있어요?”

“이제 또 무슨 상상을 하는 거니? 그런 약이 어딤어?”

“그런 약이 없어요?” 아직 열이 내리지 않은 페이즈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약은 반드시 있어. 그렇지만 페이즈랜드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약 이름도 페이즈론! 루드르는 겁에 질려서 약이 있는 곳을 말해주지 못한거야.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못된 드래곤 파우가 또 화를 낼테니까.





그날 밤, 페이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페이지론 약을 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보고 싶던 영화와 아스트라에 대한 생각에 마음이 들뜬 나머지, 온통 이 생각만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밤새 내내 영화와, 나쁜 남자애들, 여자애들에 대한 이상한 꿈만 계속 꿔습니다. 의식이 깨어나는 마법의 순간에 페이지랜드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여전히 몸이 아팠고 기침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고, 몸도 다시 건강해질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해내고 말거야!” 영화 보러가기 전날 밤 페이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잠에 들기 전, 그 마법의 순간과 페이지랜드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날 밤, 잠에서 깨어난 페이즈는 즉시 페이즈랜드에 가 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때 하늘을 나는 시도를 해봤지만, 역시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근육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몸을 세우려는 순간, 놀랍게도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법의 순간이 드디어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페이즈론 약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찾을까요? 물론, 페이즈랜드 약국에 있겠죠! 약국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페이즈는 몸을 공중에 띄워 봤습니다.

“나는 수퍼히어로!” 이렇게 외치며, 지붕을 뚫고 날아 갔습니다.

페이즈는 마을 위를 날아 다니다 약국을 발견하고 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흐리고 뿌옇게 변하더니, 2초 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침대로 다시 돌아온 페이즈는 이런 결과에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페이지는 계획한 목표에 가깝게 다가갔고, 다시 마음 먹고 시도했습니다. 두 번 더 의식이 깨어나는 상태를 경험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의식이 깨어났을 때, 약국에 가 있는 상상을 했더니, 실제로 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이것저것 모두 만져보고 뒤편을.” 갑자기 나타난 루드르가 알려주었습니다.

“오호, 바로 그거야!” 기쁜 마음으로 친구를 껴안으며 페이지가 소리쳤습니다.

두 친구는 계산대로 다가가 페이지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뒤에서 약사 선생님 대신 파우의 거대한 머리가 나타났습니다.

“하하하, 페이지론이라니 어림도 없지! 너한테는 한알도 안 줄테다!”

겁에 질리고 놀란 두 친구는 계산대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때 약국은 다시 흐릿하게 변했고, 다음날 영화도 아스트라도 볼 수 없게 되어 가자 페이지는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루드르의 힌트가 떠올랐고, 즉시 손을 잡고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섯가지 감각 모두 다시 돌아왔습니다. 페이지는 루드르를 잡고 함께 거리 밖으로 날아왔습니다.

“수퍼파워! 난 수퍼히어로야!”

파우는 페이지를 바짝 뒤쫓아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강한 마음의 의지만으로, 마을 외곽에 있는 거대한 산을 들어 올려 파우에게 던졌습니다.

“저 산 밖으로 다시 빠져나오려면 꽤나 오래 걸릴 걸!” 루드르는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한편, 페이지는 페이지론 약이 손 안에 있다는 상상을 하며, 손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부스스 소리와 함께 ‘페이지론’이라고 쓰여진 황금색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페이지는 알약을 삼켰고, 아픈게 감쪽 같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지와 루드르, 이 두 수퍼히어로는 페이지랜드를 오랫동안 날아 다녔습니다.





다음날, 몸이 훨씬 나아졌고, 의사 선생님이 극장에 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오비가 몸이 아파서 페이즈는 아스트라와 단 둘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자애들은 귀에 머리가 있다니까! 귀머리야!” 페이즈는 아스트라의 긴 머리를 잡아 당기며 소리칩니다.

이것은 바로 루드르가 알려준 여자애들과 화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스트라가 정말 화를 냈지만, 곧 두 사람은 함께 뛰어 다니고 장난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페이즈와 아스트라는 누구나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극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슈퍼히어로는 영화 속에만 있는 거라고 믿고 있겠죠.

그러는 동안, 페이즈랜드의 거대한 산 아래에서 커다란 함성이 들려 왔습니다.

“너희들에게 복수를 할테다…멀리 있는 친구들을 모두 모으면… 네 녀석들에게 당한 만큼 복수할 거야!”





마이클 삼촌이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

안녕, 친구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었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는 법! 우리의 친구 페이지가 수퍼히어로가 되는 방법을 잘 보여주었어요. 여러분도 페이지 처럼 페이지랜드를 날아 다니고, 바라보기만 해도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꿔온 모든 게 여기 있어요!

한 가지 더! 페이지랜드에서는 마음껏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픈 몸도 나아진답니다. 항상 말처럼 간단하거나 쉽지만은 않지만, 아플 때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새로운 모험이 페이지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페이지랜드와 여러분을 동화속 나라로 초대해 주는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총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도서 주문

amazon.com®

기부

PayPal



3일만에 체험하는 자각몽 및 유체이탈 경험



WWW.OBE4U.COM/KR/



4

페이스랜드 창작 동화

비행 접시를 타고 떠나는 우주
여행과 외계인 납치 사건

(취침 전 추천 도서)

Michael Raduga 원작

Suki Park 번역

Andrey Goodkov 삽화

동화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남들보다 잘하는게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페이즈는 페이즈랜드로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니까요.

“엄마가 만드는 오트밀이 페이즈랜드 오트밀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아침을 먹던 페이즈가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꿈 속 여행 이야기를 항상 하고 싶어 집니다.

“또 그 꿈 얘기니?”

“꿈이 아니라구요! 페이즈랜드는 진짜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거예요.”

“세상에는 페이즈랜드라는 곳은 없단다. 빨리 먹고, 방 청소 해.”

페이즈를 믿어 주거나 이해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 오비조차도. 사실은 오비도 신기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날 우주 여행에 대한 만화를 보고 나서
잠에 들었던 오비. 깜짝 놀랍게도 한 밤중에
잠에서 깨어 났고,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게
되었죠. 커다란 머리를 한 초록색 외눈박이 외팔
외계인 두 명이 방안에 있었습니다!

“사라져!” 외계인들은 오비를 겁주려고
했습니다.

“손 대지 마!” 오비가 소리쳤습니다. 둘 중 더
큰 외계인을 때려주고 싶었지만, 손과 팔이
밧줄에 꽂꽂 묶여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밖의 하늘을 날던 비행
접시에서 한 줄기 환한 빛이 내려와, 겁에 질린
오비를 우주선 안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초록색 외계인은 오비를 밤새 비행 접시에
가둔 채, 눈물이 날때까지 간지럼 태우고,
꼬집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얼굴로 겁을
줬습니다.





다음날 동네 꼬마들 모두 입을 크게 벌린 채 오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비를 불쌍하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스파 같은 친구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하하하! 거짓말쟁이!”

“정말이야!”

“나한테 엉덩이 한 대 맞을래?” 오비를 괴롭히려는 스파를 아스트라가 막습니다.

“어린애들을 괴롭히다니…창피하지도 않니? 재가 무서워하는 거 안보여?”

“넌 이 멍청한 꼬맹이들하고 계속 놀아라!” 페이스를 향해 아스트라를 밀치며 스파가 말했습니다. “난 새 헬리콥터 날리러 간다.”

헬리콥터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들 모두 외계인 따위는 까맣게 잊고 스파를 쫓아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오직 페이스, 아스트라, 오비 뿐. 이 세 친구들은 외계인에 대해서 꼭 밝혀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아리송한 외계인 사건은 정말 사실일까요?





오비는 우주에 대한 만화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한편, 아스트라는 한 밤중에 유령을 봤던 사건을 기억해 냈습니다.

“모든게 수상해…” 페이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니야!” 아스트라는 평소처럼 냉정하게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세상엔 무서운 것들이 많아. 외계인, 뱀파이어, 늑대인간, 유령… 그거 텔레비전에서 봤어.”

“나도 텔레비전에서 봤어!”라고 오비가 맞장구 쳤습니다.

이때 페이지에게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밤에만 생겨! 아마도 우연히 페이지랜드에 들어 갔는데, 그렇다면 왜 몰랐을까? 사악한 드래곤 파우의 속임수일까?” 마음 속으로 궁금해했습니다. 페이지는 이 생각을 직접 확인하고 의심하는 친구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첫날 밤, 페이즈랜드에 두 번 방문한 페이즈. 그 때마다 루드르는 페이즈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고, 그래서 계획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집중하는 대신, 페이즈랜드 이곳 저곳을 날아 다니며, 가는 곳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비행을 즐겼습니다.

바로 그때, 페이즈는 비행 접시가 생각났습니다. “루드르, 외계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지?” “그들이 있는 우주로 날아가면 돼.” 아이스크림을 먹던 루드르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페이즈랜드의 모든 문 뒤에 외계인이 있다고 상상해 봐. 그러면 나타날 거야.”

사악한 드래곤 파우가 아직 산 밑에 갇혀 있기 때문에, 루드르는 무서움에 떨지 않고 걱정 없이 페이즈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페이즈는 즉시 외계인을 향해 날아가 담판을 벌이고 싶었지만,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이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페이즈는 낮잠에서 깨어난 직후 마법의 순간을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났을 때, 외계인을 상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페이즈랜드에 있는 자신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뒤에 있는 비행접시 조종실이 보였습니다. 페이즈는 조종대 뒤에 앉아 광속으로 비행접시를 출발해 별들과 행성 사이를 비행했습니다.

“거기, 누구지?” 비행접시가 행성에 부딪힐 뻔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들이 내 친구 오비를 납치한 외계인들이냐?” 페이즈는 눈과 손이 세 개 달린 파란색 외계인에게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외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파란 외계인들은 착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페이즈에게 자신들의 우주선 주위를 더 날아 다닐 수 있게 허락까지 해주었으니까요.





다음날 밤 페이즈는 잠에서 깨어나 방 안에 있는 외계인 두 명을 보고 페이즈랜드에 쉽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초록색에 눈과 팔이 하나씩 달린 외계인이었습니다. 페이즈를 오비처럼 꽂꽂 묶었고, 페이즈는 잔뜩 겁이 났습니다. 외계인들은 빗줄기를 사용해 페이즈를 창밖으로 꺼낸 다음 우주선 안으로 데려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맛좀 봐라!” 오늘 밤새 널 간지럽히고 꼬집어 줄테다!” 커다란 외계인이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게 해주마!”라고 작은 외계인이 말했습니다.

“제발, 보내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납치한 거니?”

외계인은 질문에 대답은 커녕, 깃털을 들고 사악하게 웃으며 페이즈의 발을 간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히는걸 정말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자기 턱을 찹찹 씹으면서 꿀꿀 소리까지 냈습니다.





페이즈는 너무 간지러워서 눈물이 났고,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외계인이 갑자기 페이즈를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호, 파우가 기뻐하겠군!” 이말을 하자마자 하나 밖에 없는 눈으로 커다란 외계인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파우?” 놀란 페이즈가 말했습니다.

“헛소리를 들은거야.”라고 외계인들이 킁털로 계속 간지럼을 태우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페이즈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페이즈랜드에 도착한 걸 알아 차리지 못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몸에 묶인 밧줄을 끊었습니다. 외계인들을 때려주고 싶었지만, 녀석들은 작은 비상용 비행접시를 타고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페이즈는 녀석들을 쫓아가 레이저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외계인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비행했습니다.





다음날, 페이즈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옳았다고 증명해 보였습니다.

“내가 페이즈랜드에 갔었다고 말했었지!”

“정말로?”라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오비가 비꼬았습니다.

“페이즈랜드 이야기 이제 지겨워!” 아스트라가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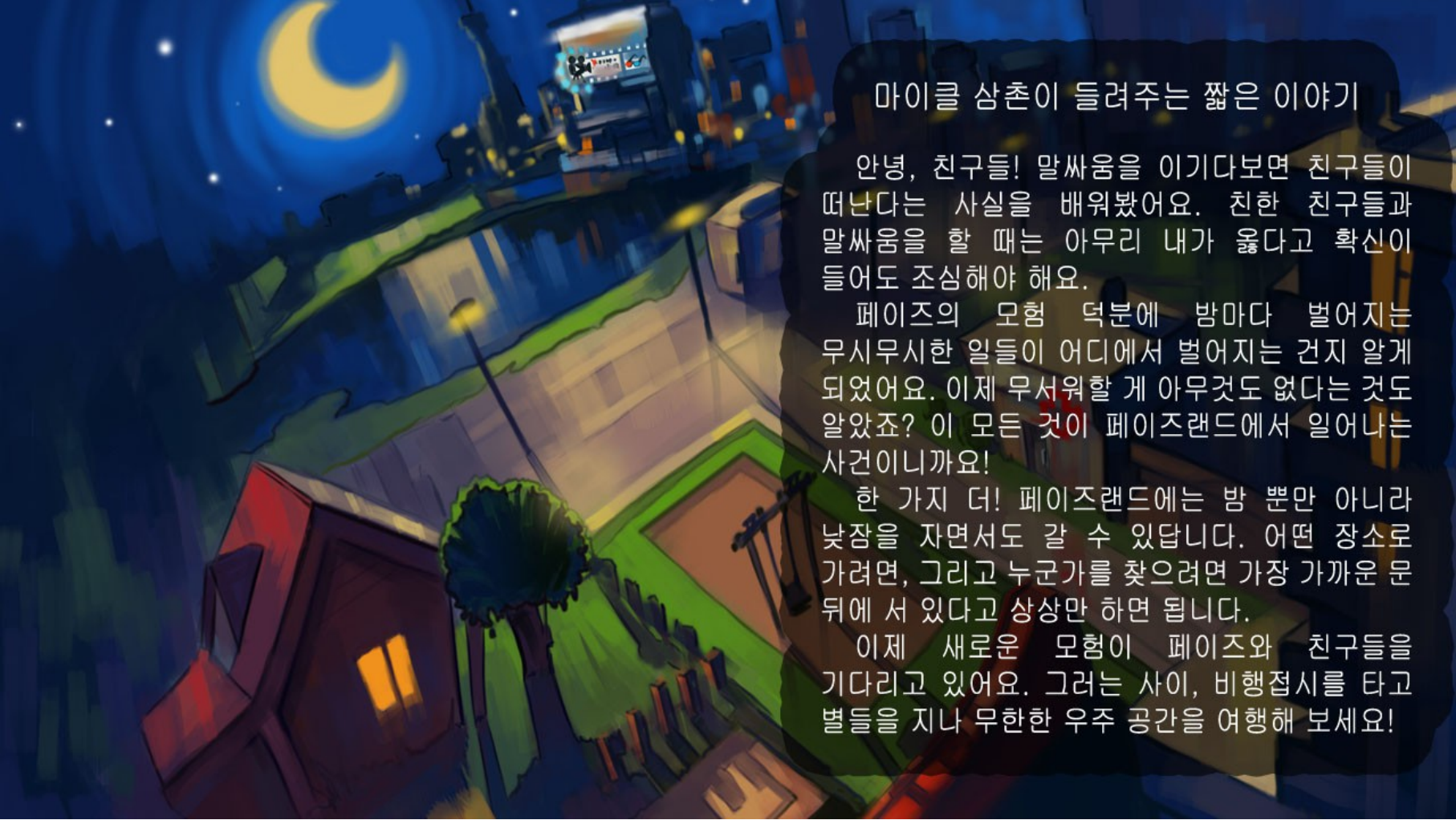
하지만 페이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밤에 일어난 모든 기적과 끔찍한 경험은 파우와 부하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이야. 외계인이나 유령은 실체가 아니라고!”

“말도 안돼! 난 헬리콥터 구경하러 갈래. 이제 너랑 안 놀거야!”

아스트라는 혀를 내밀고 놀라움에 어쩔 줄 모르는 친구들을 남겨 놓고 떠났습니다. 페이즈는 아직 너무 어려서, 여자애들은 자기가 틀리고 할 말이 없을 때 그렇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든게 헛갈렸습니다. 이제 뭘 해야하지? 아스트라와는 어떻게 화해하지?





마이클 삼촌이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

안녕, 친구들! 말싸움을 이기다보면 친구들이 떠난다는 사실을 배워봤어요. 친한 친구들과 말싸움을 할 때는 아무리 내가 옳다고 확신이 들어도 조심해야 해요.

페이지의 모험 덕분에 밤마다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건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았죠? 이 모든 것이 페이지랜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요!

한 가지 더! 페이지랜드에는 밤 뿐만 아니라 낮잠을 자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로 가려면, 그리고 누군가를 찾으려면 가장 가까운 문 뒤에 서 있다고 상상만 하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모험이 페이지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 비행접시를 타고 별들을 지나 무한한 우주 공간을 여행해 보세요!



총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도서 주문

amazon.com®

기부

PayPal



3일만에 체험하는 자각몽 및 유체이탈 경험



WWW.OBE4U.COM/KR/



5

페이즈랜드 창작 동화

무시무시한 묘지로 떠나는
모험과 비밀의 장소

(취침 전 추천 도서)

Michael Raduga 원작

Suki Park 번역

Andrey Goodkov 삽화

동화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페이즈는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오트밀을 너무 좋아하는 누구나 아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즈가 좋아한 건 바로 할머니의 사과 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시골에 살고 계셔서, 페이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과 파이도 먹고 싶었지만, 그 보다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아들, 오늘은 집에 일찍 와.” 식탁을 치우시며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할머니댁에 가니까...”

“와, 신난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챙기려 달려가면서 페이즈가 외쳤습니다.

페이즈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과 파이를 먹는 상상을 하며, 필요한 짐을 챙겼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동화책도 읽어 주시고, 어릴적 재미 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이제 다른 세상으로 떠나셨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다시 돌아와요?”

“할머니는 이제 다시 안 오셔.” 이렇게 말씀하시며, 엄마는 슬퍼하셨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날밤, 페이즈는 페이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루드르와 어두운 숲속을 거니는 동안, 꼬마 친구 드래곤에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루드르, 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이제 더이상 할머니를 껴안을 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애플파이도 못 먹게 되는 거야?”

“보통은 그렇지. 하지만 너한테는 예외야.” 친구가 수상쩍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봐...”

그 순간 하늘은 갑자기 불덩이로 변했습니다. 루드르가 사람을 다시 도와주려고 하는 사실을 못된 드래곤 파우가 알아차렸나 봅니다. 꼬마 드래곤은 재빨리 눈덮인 산속으로 숨었고, 페이즈는 친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잠에서 깬습니다.





페이지와 오비는 하루종일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고, 죽는다는 건 정말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아마도 죽고나면 비행기를 타고 따뜻한 나라로 멀리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만날 수 있겠다, 그렇지?”

“페이지, 넌 멍청이야!” 오비가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

두 친구는 아스트라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스트라는 이야기는 커녕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가 그동안 통하던 수법인 머리 잡아당기기를 시도하자 스파가 한 대 때렸습니다. 아스트라는 스파랑 둘도 없이 친한 친구라고 모두에게 알렸고, 스파는 아스트라에게 리모콘 조정 헬리콥터도 가지고 놀게 해주고, 빨간 자전거도 태워줬습니다.





사람이 하루 아침에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어린 소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무엇보다도 왜 할머니를 영원히 다시 못게 되는지, 그리고 엄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볼 방법이 있을거야! 언제 어디서 할머니가 만든 사과 파이를 먹을 수 있을까?”

“거짓말쟁이! 이제 다 끝이라고 하잖아. 할머니도 사과 파이도 이젠 없는거야.”

“말도 안돼!”

“말도 안 되는 건 페이즈랜드야!”

“바로 그거야!” 페이즈는 놀란 친구를 너무 꼭 껴안은 나머지, 친구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를 찾을거야!”

오비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즈는 할머니의 사과 파이를 꼭 다시 먹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페이즈랜드에서 할머니를 찾고 사과 파이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다시 힘이 생긴 페이지는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 빠지기 전, 깨어나는 그 몇 분 동안 페이지랜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해 봤습니다.

깨어나고 나서, 즉시 할머니가 떠나셨다는 다른 세상에 대해 상상해 보았습니다. 페이지는 순식 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추위를 느꼈습니다. 주위를 보니 어두운 숲 속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춰진 오래된 묘지와 절반이 허물어진 묘지 지하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단다...” 큰 묘지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잠에서 바로 깨어났습니다. 할머니를 너무 사랑한 페이지는 어디에서라도 할머니를 보고 싶었지만, 그 곳 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도를 해야했습니다. 다 큰 소년은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워낙 고집이 세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후 깨어난 페이지는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뜨려는 노력을 한 순간, 순식간에 몸이 로켓처럼 천장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페이지는 다시 그 묘지로 날아갔고, 가까이 다가가자 다시 한 번 오싹한 공포와 추위를 느꼈습니다. 달빛은 오래된 커다란 묘지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단다...” 이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가고 있어요!”

무서워하는 걸 아시면 할머니가 속상해하실까봐 애써 감췄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하묘지를 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문이 살짝 열리더니 큰 소리를 내며 까마귀가 밖으로 날아 왔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던 페이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무서웠던 적은 일생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깨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페이즈랜드의 묘지에 가 있는 상상을 했더니, 순식간에 지하 묘지 앞에 있었고, 더 무서워지기 전에 묘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뒤로 빛이 너무 밝아 안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빛 때문에 손으로 눈을 가려야 했습니다.

“여기로 오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여전히 낮설고 기분 나쁜 느낌이었습니다.

페이즈는 재빨리 눈에서 손을 떼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이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괴물 파우! 페이즈는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선 할머니도 볼 수 없고, 사과파이도 먹을 수 없다!” 불을 내뿜으며 파우가 으르렁 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페이지를 막을 수 없는 법! 마음의 힘만을 사용해 땅을 가르고 묘지 바닥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파우는 비명 소리와 함께 깊은 틈새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페이지는 틈새를 다시 막으면서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못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뒤에 계시는 상상을 하며 묘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찾아 간 곳은 바로 할머니의 부엌! 할머니가 기쁘게 맞아주시며 사과 파이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입 안에 사과 파이를 한 가득 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최고야! 할머니가 고마워하는거 알지?” 미소를 지으시며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시골에 사셨던 재밌고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페이즈는 할머니를 찾아가 사과 파이를 먹게 돼 무척 행복했고, 매일 그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보고 싶은 모든 사람을 페이즈랜드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보고 싶은 사람들 이름을 써내려 갔습니다. 영화 속 영웅, 커다란 공룡, 유명한 운동선수 등등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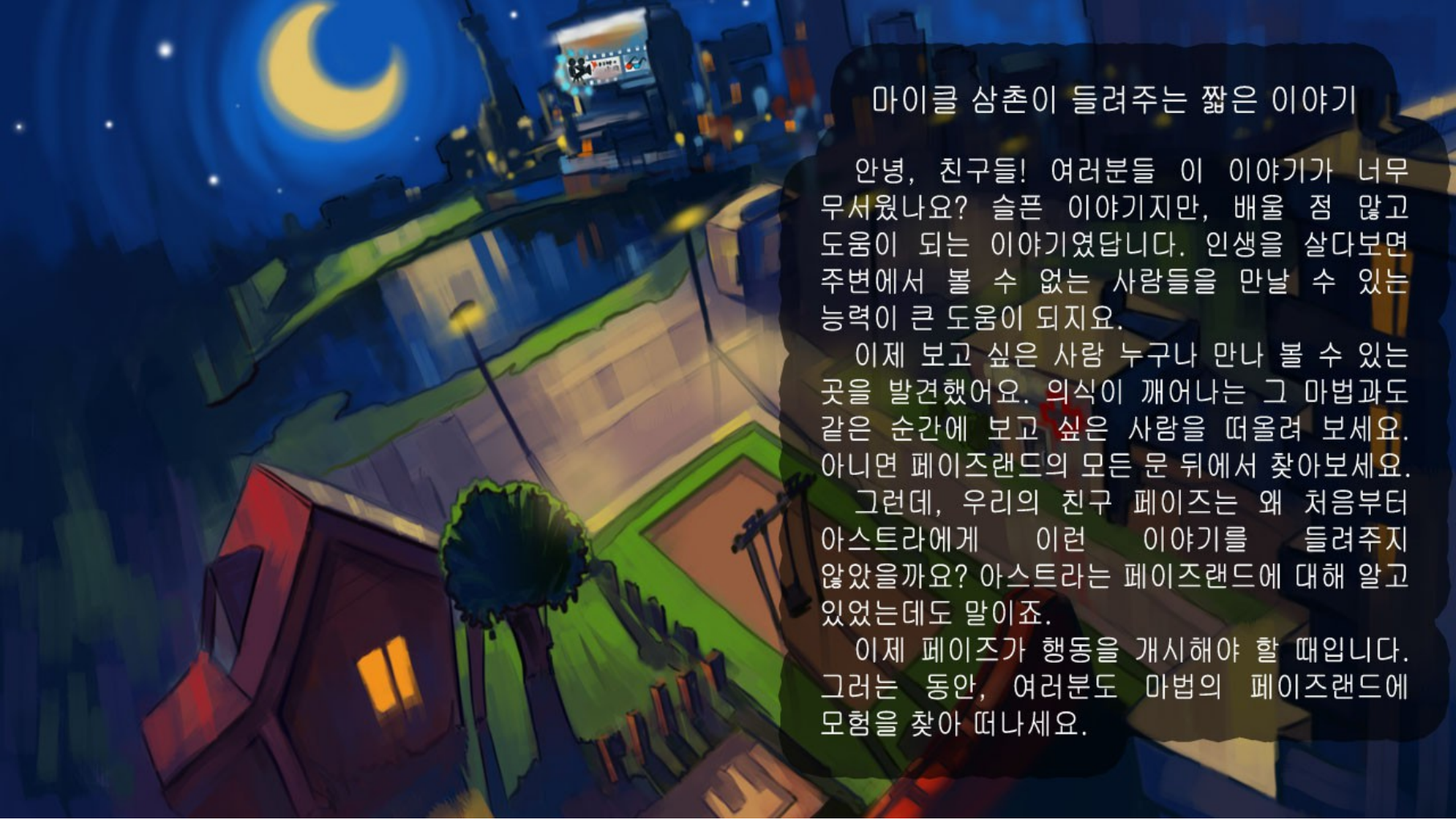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동안 페이즈는 창밖에 있는 아스트라를 봤습니다.

여자 친구들과 재미있게 수다를 떨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친구가 될거야. 확실하다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페이즈가 몰랐던 사실이 단 한가지 있었습니다. 과연 페이즈랜드에서 함께 보낸 시간을 할머니는 기억하실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실험이 필요합니다. 왜 예전에는 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마이클 삼촌이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

안녕, 친구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너무 무서웠나요? 슬픈 이야기지만, 배울 점 많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큰 도움이 되지요.

이제 보고 싶은 사람 누구나 만나 볼 수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의식이 깨어나는 그 마법과도 같은 순간에 보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페이즈랜드의 모든 문 뒤에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친구 페이즈는 왜 처음부터 아스트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아스트라는 페이즈랜드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제 페이즈가 행동을 개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분도 마법의 페이즈랜드에 모험을 찾아 떠나세요.



총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도서 주문

amazon.com®

기부

PayPal



3일만에 체험하는 자각몽 및 유체이탈 경험



WWW.OBE4U.COM/KR/



6

페이즈랜드 창작 동화

위험한 스포츠카 경주대회와
다시 돌아온 아스트라

(취침 전 추천 도서)

Michael Raduga 원작

Suki Park 번역

Andrey Goodkov 삽화

동화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페이지는 며칠 동안 페이지랜드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스트라와 만날 계획을 짜면서,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여자애들은 어떤 남자애를 좋아해?”
제일 좋아하는 오트밀 아침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좋아하는 애가 있구나?”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물어 본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자 얼굴이 살짝 빨개졌습니다.

“여자애들은 영웅, 그리고 1등하는 남자애들을 좋아할 거야.”

엄마의 대답을 들은 페이지는 기뻐했습니다. 아스트라에게 영웅처럼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똑똑한 여자애라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남자애한테 반할테니까요. 착하거나 못된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애들은 원래 그러니까요.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처럼, 계획이 쉽게 이루어진 유일한 곳은 바로 페이지랜드였습니다.





페이지랜드에 다시 가자마자 행동에 바로 돌입한 페이지. 아스트라가 보는 앞에서 경주에서 1등을 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스트라가 다시 다가오고, 두 사람은 페이지랜드 밖 실제 세상에서 다시 친구가 될 것입니다.

경주장에 도착하자, 출발선에 이미 경주차가 다섯 대 있었습니다. 제일 멋진 빨간 차를 선택한 후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페이지.

“내 실력을 한번 보라고!” 관중 속에서 아스트라를 본 페이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드리어 경주 시작! 모든 차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앞을 향해 튀어 나갔습니다. 뒤에 처진 페이지는 마음의 힘만으로 경주차의 평범한 엔진을 강한 로켓 엔진으로 바꿨습니다! 경쟁자들보다 벌써 다섯 바퀴나 앞서 갔고, 모든 사람이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감동 받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스트라! 아스트라는 쳐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자 페이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날, 마당에서 장난감 자동차 놀이를 하는 페이즈와 오비. 평상 시처럼 아스트라는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스파는 정말 힘이 세.” 소년들 옆을 지나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스파를 좋아하나 보구나.” 지나가는 아스트라를 보면서 페이즈가 말했습니다.

“잘 됐군! 아스트라가 얼마나 악동인데, 한 번 겪어보라 그래!” 장난감차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애쓰며 오비가 말했습니다.

페이즈는 갑자기 장난감차에 로켓 엔진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을 하자마자 자동차가 하늘로 치솟아, 다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페이즈는 친구가 경주에서 진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축하해 주길 바랬지만, 오비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자동차 경주 따위엔 관심 없이, 모래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페이즈는 오비와 아스트라가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번 자신이 이겼지만, 친구들은 아는 척도 안했으니까요.

“화났어?”

“당연하지! 정정당당하게 이긴게 아니니까!”

“내 장난감차에 로켓 엔진이 달리게 내 잘못이니?”

“네 잘못이지! 속임수를 쓴 거잖아! 누구나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오비는 계속 혼자 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페이즈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경주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정직하게 이기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스트라의 관심을 확실하게 다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밤 페이지는 커다란 트럭으로부터 쫓기는 꿈을 꿔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단지 꿈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꿈 속에 있다고 깨달자마자 이미 페이지랜드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주장에 도착해 출발선에서 자신의 빨간 차를 골랐습니다. 수많은 관중들 사이에서 자기를 응원해주는 아스트라와 루드르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들은 듯한 무서운 목소리가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멍청이!”

“녀석, 이번엔 어림 없어!”

주변을 돌아 보니 전에 본 적 있는 외눈박이 외팔 외계인이 바로 옆 노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자, 모두 쏘살같이 달려 나갔고, 미처 때를 놓친 페이지는 꼴찌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경주가 끝나기 직전에야 속임수를 쓰지 않고도 운전하는 방법을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우승은 외계인들이 차지했구요.





페이지랜드에 다음 번 찾아 갔을 때는 아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고집센 페이지는 출발선에서 자신의 빨간 차에 미리 앉아 있었습니다.

“워야, 넌 정정당당하게 못 이기니?”

“조용해 해!” 뻔뻔한 외계인들이 옆 차에서 혀를 낼름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너희들은 정정당당하게 경주하면 끝이야!” 페이지가 외계인들에게 소리치자 꼴지로 비교 당한게 분한 외계인들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경주에서 다시 이겼습니다. 페이지가 거의 따라 잡았지만 결승선을 앞두고 펭귄 같은 게 든 파란 차와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프면 어떡하지?” 의사 선생님이 페이지를 차에서 빼내는 동안 아스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처를 꿰매야 할거야!” 아기 공룡 루드르가 말했고, 페이지는 아스트라가 간호를 해줄 상상을 하며 행복하게 잠에 빠졌습니다.





거의 우승할 뻔 했다는 생각을 하자, 페이지는 다음 번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을 다시 포착했습니다. 빨간 차 안에 앉아있는 상상을 하자 바로 차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경주가 시작되고 ...

“달려, 페이지! 넌 해낼 수 있어!” 관중석에서 아스트라와 루드르가 외쳤습니다.

“최선을 다 할게!” 온갖 힘을 다해 가속 페달을 밟으며 페이지가 소리쳤습니다.

천둥 같은 함성과 함께 다른 차들을 따라잡고, 외계인들도 따라잡았습니다. 빨간 차와 노란 차는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앞뒤를 다투며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결승점을 바로 앞두고 페이지는 서서히 외계인들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따라잡으면 이길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계인들이 초록색 손을 사용해 속임수를 쓰는 바람에 페이지는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머리 나쁜 녀석들은 지구에만 있는게 아니라 저 멀리 우주에도 살고 있었나 봅니다. 외계인들은 자신들이 외팔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결국 외계인들이 노란 차는 비틀거리다 결승점 바로 앞에서 벽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즈는 포기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잘했어!” 껴안아 주면서 아스트라가 말했습니다.

“난 너무 걱정되서 날개가 떨어져 나갈뻔 했다고!”

“식은 죽 먹기지!” 지친 목소리로 페이즈가 말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우승자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트로피를 받은 후, 페이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지나가 맛있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페이즈는 아스트라에게 찾아갔습니다. 아스트라는 여자 애들하고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경주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나?”

“무슨 경주?” 아스트라가 놀라며 물어보다가, 돌연히 “물론이지, 넌 영웅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친구 맞지?”

“우리가 언제 친구 아니었던 적이 있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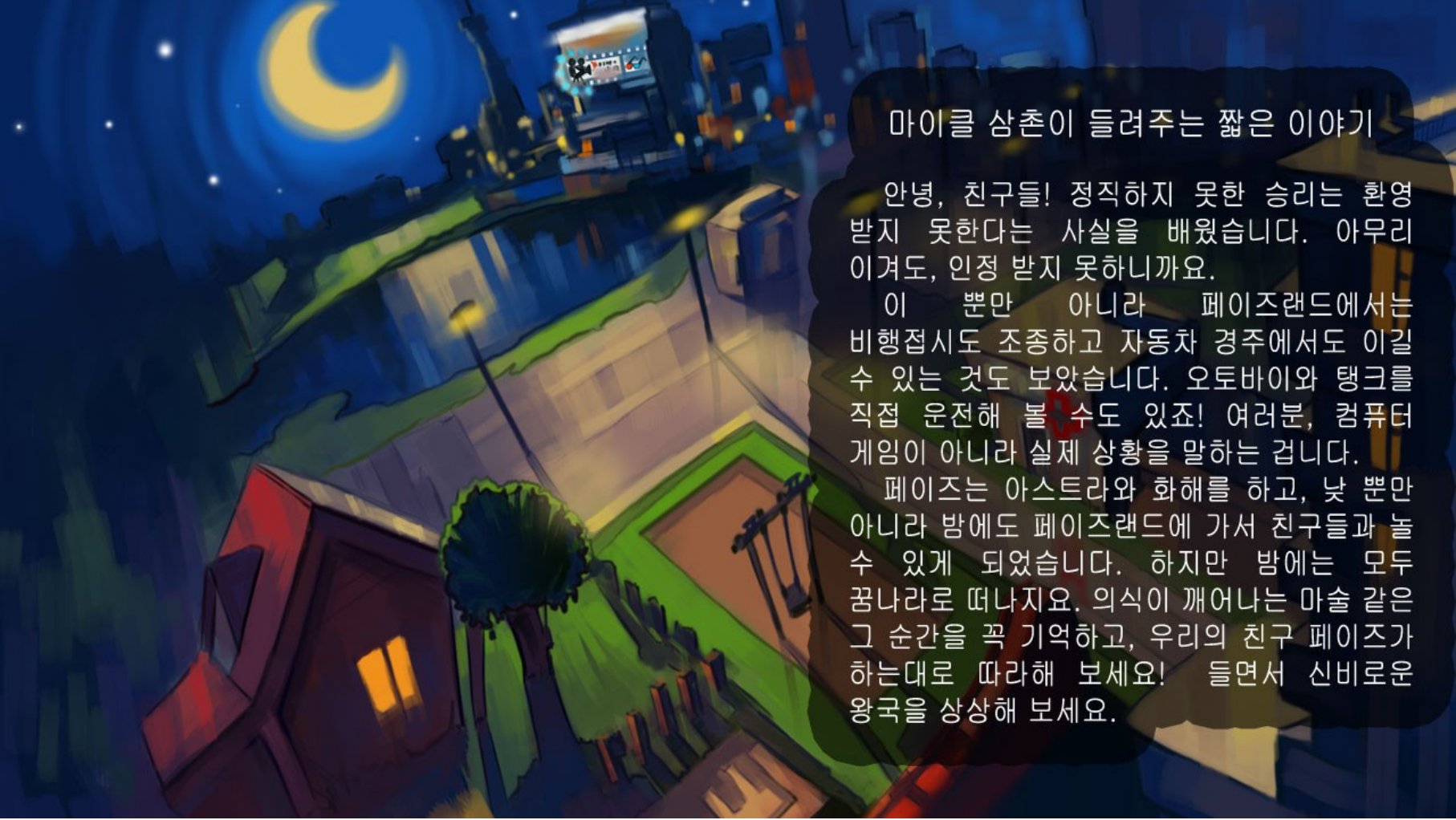
“그래?”

“만약이 그럴다는 거야” 과연 아스트라 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나랑 호수에 수영하러 갈거지?”

“물론이지! 나도 수영할 줄 아니까!”

페이즈는 아스트라와 다시 친구가 되어 너무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했지만, 사실 수영은 못 하거든요. 이제 이 고민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아스트라는 벌써 1년째 수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앞에서 수영을 못하면 창피 당할게 분명하니까요.





마이클 삼촌이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

안녕, 친구들! 정직하지 못한 승리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이겨도, 인정 받지 못하니까요.

이 뿐만 아니라 페이즈랜드에서는 비행접시도 조종하고 자동차 경주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토바이와 탱크를 직접 운전해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페이즈는 아스트라와 화해를 하고, 낮 뿐만 아니라 밤에도 페이즈랜드에 가서 친구들과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모두 꿈나라로 떠나지요. 의식이 깨어나는 마술 같은 그 순간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친구 페이즈가 하는대로 따라해 보세요! 들면서 신비로운 왕국을 상상해 보세요.



총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도서 주문

amazon.com®

기부

PayPal



3일만에 체험하는 자각몽 및 유체이탈 경험



WWW.OBE4U.COM/KR/



7

페이즈랜드 창작 동화

신비로운 해저모험과 바다 속
괴물과의 한판 승부

(취침 전 추천 도서)

Michael Raduga 원작

Suki Park 번역

Andrey Goodkov 삽화

동화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다른 모든 꼬마들처럼 페이즈도 호수가에서 물장난 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기다려졌는데, 이번엔 그럴지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호수에 안 가죠?” 아침 식사 중 페이즈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바라며 물었습니다.

“왜 안가니? 당연히 가야지! 다른 엄마 아빠들하고 같이 수영도 하고 일광욕도 즐기고 싶단다.”

호숫가 소풍을 취소해 보려는 모든 노력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픈 척도 해봤지만, 보일러를 너무 높게 올려 열이 심하게 올랐고, 엄마는 믿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수영을 배우고 싶었지만, 항상 말뿐이었죠. 이제 아스트라 앞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할거예요. 고민거리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공룡 루드르가 더 힘든 상황에 빠져 있었답니다.





친구들과 페이즈랜드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못된 드래곤 파우가 모든 산에 불을 질렀어요. 눈 덮인 산꼭대기가 녹아 내리고, 루드르는 이제 파우 일당으로부터 숨을 곳이 없어졌어요.

“고래들한테 물을 내뿜어서 불을 꺼달라고 부탁할까?”

“하지만 녀석들은 물속 깊숙이, 멀리 수영하잖아.” 루드르는 한숨을 쉽니다.

알고보니 다른 아기 공룡들처럼 루드르도 수영을 못한답니다. 페이즈를 도와줄 방법을 확실히 알았지만, 무서운 파우 때문에 바로 말을 할 수가 없었던거죠.

“너라면 수영을 금방 배울 수 있을거야.” 루드르가 넌지시 말했지만, 페이즈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해변가에 있는 고래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고래들이 바다로 들어오라고 초대했지만, 물에 빠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날 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즈와 오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장난감 보트 경주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다가 오비도 수영을 못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오비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난 평상시처럼 호숫가에 가서 놀거야. 난 변덕스런 여자애들한테 관심 없어.”

“너야말로 아스트라한테 관심있잖아! 우린 그냥 친구 사이야.” 얼굴이 빨개진 페이즈가 말했습니다.

“곧 뽀뽀 할거지?...하하하!”

페이즈는 화를 못 참고 오비의 보트를 발로 찼습니다. 오비도 똑같이 행동하자, 두 사람은 몸싸움을 시작했고 물 속에 푹뎅 빠져버렸습니다. 이 때 두사람은 싸움을 멈췄습니다. 옷이 흠뻑 젖고 더럽혀져 엄마한테 꾸중들을 일만 남았습니다.





페이지와 오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난감 보트를 고치고 강가를 따라 걷다, 커다란 물구덩이를 보았습니다. 오리 한마리와 수많은 새끼 오리들이 온갖 벌레들과 함께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리들도 저렇게 수영을 하는데!” 실망한 페이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오리들은 연습할 곳이 많잖아. 저 많은 물구덩이 좀 봐!”

페이지는 잠시 멈춰 생각해 봤습니다. 연습할 공간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물구덩이에서 연습을 하려고 했지만, 가장 깊은 곳도 무릎까지 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욕조에서 시도해 봤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었어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후, 결국 페이지랜드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그거야! 거기엔 연습할 곳이 얼마든지 있을 거야!”





한밤 중에 깨어난 페이지는 신비로운 마법의 순간을 사용해 즉시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러자, 루드르도 함께 따라왔어요.

“내가 한 말 이해한 거니?”

“그래. 그냥 직접 말해주지 그랬어. 네가 한 말이 아니었다면 이 생각을 미처 못했을 테지만 말이야.” 페이지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같이 수영 배울까?”

두 친구는 함께 물 속으로 들어가 강가 모래톱 위에서 수영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고래들이 나타나 바다 속으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짠 바닷물을 좀 삼키고 난 후, 페이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방법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끈질기게 도전한 결과 페이지와 친구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엔 실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번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페이지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거의 바다 가까이 도착했고, 해변에서 무척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루드르, 날 좀 구해줘!” 물 속에 빠지기 전에 이 말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려!” 물 속으로 퐁덩 떨어지며 아기 공룡이 말했습니다.

두 친구는 있는 힘을 다해 물 위로 헤엄쳐 서로를 구해냈습니다. 고래들은 즐겁게 주변에서 헤엄치며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우리를 구해줘!” 페이지가 소리쳤고, 그 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물 속에서 쉽게 숨 쉴 수도 있고, 이야기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루드르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분 후, 두 친구는 아주 쉽게 헤엄을 치며, 고래들과 함께 물 속으로 다이빙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랜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다음 번에는 고래들이 있는 곳으로 헤엄쳐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다음날 밤 의식이 깨어나는 그 순간 페이지는 바다에 가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몸을 공중에 띄울 수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몸의 근육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페이지는 즉시 방바닥을 통과해 차갑고 어두운 깊은 바다 속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래들이 과연 도와줄까?” 나란히 헤엄을 치던 루드르가 물었습니다.

“글쎄, 친절하게 부탁해 보자.” 바다속 깊숙히 계속 헤엄쳐 가면서 놀란 페이지가 대답했습니다.

커다란 고래들은 알고보니 착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루드르가 말도 꺼내기 전에 불쌍했는지, 불타는 페이지랜드를 모두 꺼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두 친구가 고래들과 함께 물 위로 헤엄쳐 올라왔을 때, 거대한 문어가 위에서 덮쳐 끈끈한 다리로 이들을 감싸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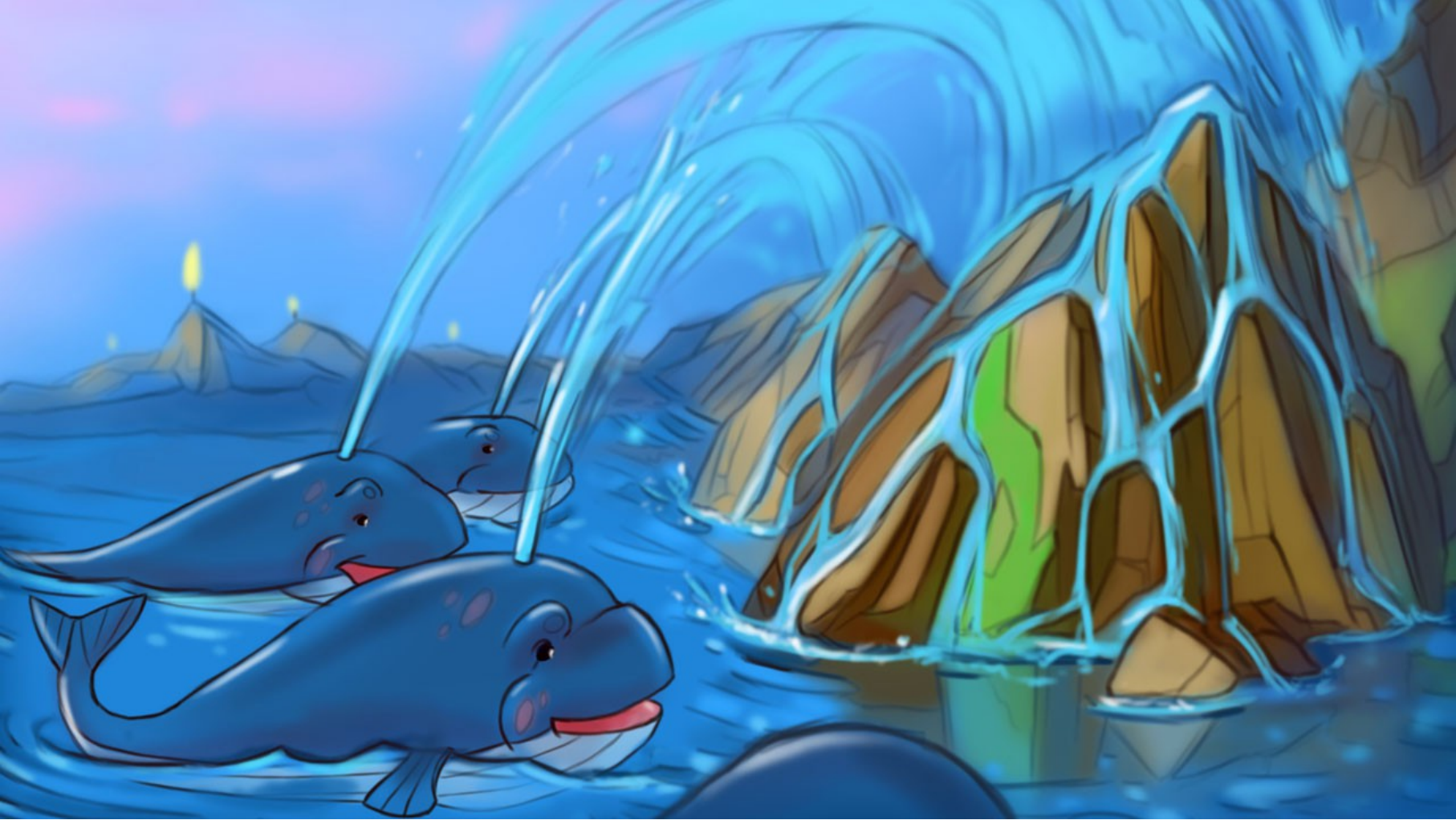


알고 보니, 파우 일당이었습니다.
“이봐… 너희들 어디에 가는 거냐?” 가장 큰
문어가 소름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얌얌, 문어 튀김 정말 맛있겠다!” 수많은
고래떼가 이쪽을 향해 오는 걸 본 페이지는
악당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래들은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각각 이빨을
사용해 문어 다리 끝을 잡고, 잡혀 있던
친구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위험에서 빠져나온 후, 친구들은 다시
수영 연습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고래들은
엄청난 양의 물을 뿜어 내면서 페이지랜드의
산불을 모두 순식간에 꺼주었습니다. 이제
루드르는 눈덮인 산에서 악당 파우로부터 숨을
수 있고, 페이지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동네의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들은 호숫가로 소풍을 떠났습니다. 아스트라는 제일 먼저 수영복을 갈아 입고 헤엄치기 시작하며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스파는 페이스가 수영을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트라가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 페이스한테 빨간 부표가 있는 곳까지 헤엄쳐 오라고 했습니다.

“식은 죽 먹기지!” 페이스는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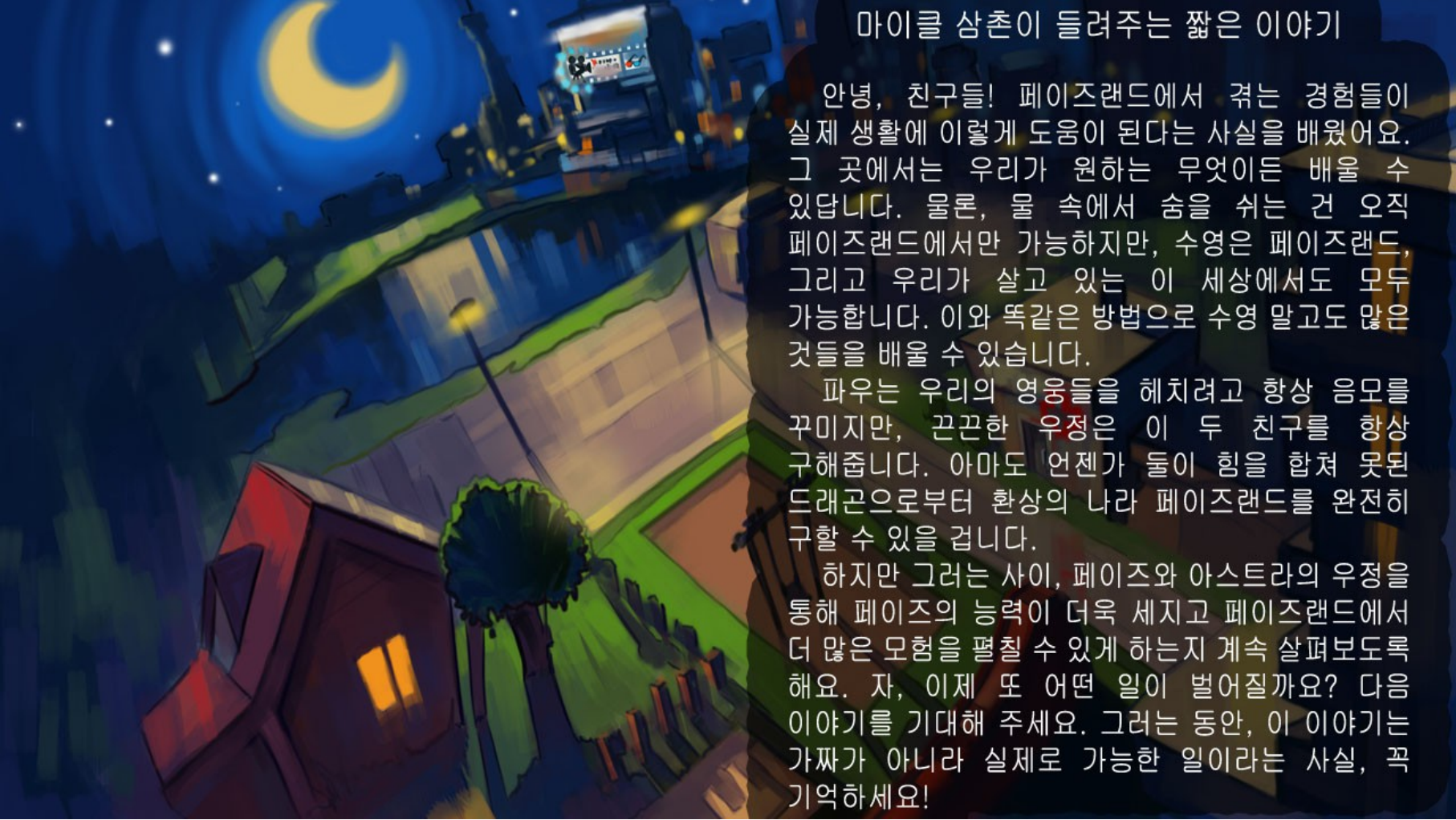
“정말 그래?” 걱정스런 오비가 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아스트라가 외쳤고, 소년들은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몇 미터 동안 다른 소년들을 모두 따라잡은 페이스는 수영대회에서 쉽게 1등을 차지했고, 한편 스파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함께 헤엄치고 물장난을 했지만, 스파는 한 쪽에 혼자 앉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에게 복수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마이클 삼촌이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

안녕, 친구들! 페이즈랜드에서 겪는 경험들이 실제 생활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 곳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물 속에서 숨을 쉬는 건 오직 페이즈랜드에서만 가능하지만, 수영은 페이즈랜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수영 말고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파우는 우리의 영웅들을 해치려고 항상 음모를 꾸미지만, 끈끈한 우정은 이 두 친구를 항상 구해줍니다. 아마도 언젠가 둘이 힘을 합쳐 못된 드래곤으로부터 환상의 나라 페이즈랜드를 완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페이즈와 아스트라의 우정을 통해 페이즈의 능력이 더욱 세지고 페이즈랜드에서 더 많은 모험을 펼칠 수 있게 하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그러는 동안, 이 이야기는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총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도서 주문

amazon.com®

기부

PayPal



3일만에 체험하는 자각몽 및 유체이탈 경험



WWW.OBE4U.COM/KR/



8

페이스랜드 창작 동화

동물로 변신하기, 그리고
늑대와의 한판 승부

(취침 전 추천 도서)

Michael Raduga 원작

Suki Park 번역

Andrey Goodkov 삽화

동화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페이즈와 긴머리 소녀 아스트라는 거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다른 애들과는 달리 두 친구는 페이즈랜드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페이즈, 거기에서 동물로 변신해 본 적있어?”

“가능할까?”

“페이즈랜드에선 물론 가능하지! 한번은 작은 새로 변신한 적도 있어. 새처럼 짹짹거리고 모이기도 모았어.”

페이즈는 자신이 페이즈랜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맛있는 파이를 저녁을 먹은 한 후, 그날 저녁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이 무서워하는 늑대가 주변에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 모험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다 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페이지랜드의 정글에 도착한 페이지는 네 발로 뛰어다니며 힘센 호랑이로 변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봐, 착한 애야! 착한 애야!” 머리 위에서 원숭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어디서 온 녀석이야?” 곰이 길을 막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산책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페이지는 줄무늬 꼬리가 달린 호랑이로 이미 변해있었습니다.

페이지는 모든 동물들과 친해져 오랫동안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못된 잿빛 늑대가 숲에 가득 등장해, 모든 동물들을 위협하며 내몰았습니다. 이런, 알고 보니 사악한 드래곤 파우가 꾸민 음모였습니다. 페이지가 이렇게 페이지랜드에 와 있는 걸 싫어하니까요.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페이지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자 스파가 다가와 다음날 저녁 결투 한 판을 신청해왔습니다.





스파한테 실컷 얻어맞을 것이 확실했지만 하루 종일 연습하고 근육을 탄탄하게 키우기로 했습니다.

“스파한테 엄청 맞을 거야! 어쨌든 스파가 더 나이가 많잖아.” 오비가 비웃었습니다.

턱걸이봉에 오르면 페이스는 “난 포기 못해. 아스트라는 겁쟁이를 싫어한다고!”라고 대답합니다.

“멍청한 여자애들은 골치거리야. 여자애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오비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페이스는 아스트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팔굽혀 펴기와 턱걸이를 계속하고, 비밀 펀치 공격도 연습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스파는 침대에 누워 내일 결투에서 이기는 상상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아스트라가 환호하며 자신의 팔 근육을 만지는 상상을 즐겼습니다. 어느 쪽이든 페이스에게 망신을 주고 아스트라와 다시 친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 오후 페이지는 아스트라와 만나 정글에서 함께 어울린 동물들과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굉장히 많아! 다들 무서워서 도망갔어.”

“그럼 우리 이제 어찌지?”

“나도 몰라. 무서워서 다시 못 가겠어.”

“불쌍한 동물들을 구하지 않을 거니?” 답답한 마음에 아스트라가 묻습니다. “넌 용감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페이지는 다음날 스파한테 얻어 맞으면 아스트라가 속상해 할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변덕스런 여자애들 앞에서는 항상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결국 페이지랜드에 있는 동물들을 먼저 구하고, 늑대들을 처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 스파와의 대결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에 들었을 때 성난 늑대 무리에 맞서 싸울 좋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의식이 깨어나는 그 마법의 순간, 정글에 바로 도착해 어린 호랑이로 문제 없이 변신했습니다. 몇 번 호흡을 한 후, 있는 힘껏 다해 소리쳤습니다.

“동물 친구들, 모두 여기로 나와!” 사방에서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늑대에게 겁에 질린 모든 동물들이 금새 페이지 주변에 모였습니다.

“늑대를 물리치는 방법을 알아냈어!”

“신난다, 드디어!” 새끼 동물들이 기뻐했습니다. “잘했어, 아기 호랑이야!”

페이지가 동물들에게 계획을 말해주기도 전에 사악한 한 무리의 늑대가 주변을 감쌌습니다. 늑대들은 무시무시하게 이를 갈고 으으름 거리며 점점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동물들을 덮치고 물어 뜯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페이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늘 고집이 센 페이지지만, 이번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번 의식이 깨어나는 마법의 순간에 정글로 바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정글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페이지는 쯤썩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새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늑대라해도 하늘에 있는 새를 잡을 수는 없는 법. 게다가 늑대는 불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스트라, 너 맞니?” 늑대가 방해하는 바람에 씨앗을 줍지 못하는 작은 새가 보였습니다.

“페이지, 생각해 낸 방법 있어?”

“페이지랜드에 있는 모든 동물들한테 횃불을 들고 늑대들을 화산 입구로 몰고 가라고 해!”

아스트라한테 말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늑대들이 위에서 페이지를 덮쳤습니다.





페이즈는 다시 잠에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시도를 하고 즉시 페이즈랜드에 다시 찾아갈 수 있었어요! 새들과 동물들이 사방에서 횃불을 들고 잿빛 늑대들을 화산 입구까지 몰고 온 곳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늑대들을 화산 입구에 몰아 넣자, 페이즈는 잠자던 화산을 깨워 늑대들을 용암 구덩이 속에서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그순간 늑대들이 울기 시작하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는 오직 마음의 힘만을 사용해 늑대들을 귀여운 새끼 늑대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시도해서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은 성공이죠!

“신나다! 우리가 이겼어!” 사방에 있던 동물들이 어린 늑대와 어울려 소리쳤습니다.

“페이즈, 뒤를 돌아 봐!” 작은 새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동물들은 사방으로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늑대 두목이 페이즈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잿빛 늑대보다 10배나 더 컸고, 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보름달에 비쳐 반짝거렸습니다.





늑대 두목이 너무 무시무시한 나머지 아기 호랑이 페이지의 발이 파르르 떨렸고, 꼬리는 다리 사이로 숨었으며, 이빨도 덜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공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갈 곳 없이 궁지에 몰린 아기 호랑이는 으르렁 소리를 내며 무서운 늑대 두목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로 물어 뜯고 할궤던 중, 페이지는 갑자기 늑대의 송곳니에서 빠져 나와 늑대 뒤에서 발톱과 이빨을 사용해 꼬리를 잡았습니다.

늑대가 아무리 돌아서려고 해도 아기 호랑이 페이지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기 호랑이의 이빨이라 힘도 세고 날카로우니까요.

“난 포기할래! 네가 이겼어!” 지친 늑대가 울먹였습니다.

“더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거지?” 페이지가 이를 갈며 으르렁 댔습니다.

“맹세해! 맹세한다고!” 기쁨에 소리를 지르는 동물들 사이로 풀려난 늑대가 애원했습니다.





다음날 스파와 페이즈의 결투를 보기 위해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농구장에 모였습니다. 아스트라도 결투에 대해 알았지만, 그 이유가 자기 때문인 것은 몰랐습니다.

스파는 순진하게도 쉽게 이길거라고 예상했지만, 페이즈를 봤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몸놀림과 모습이 강해보였기 때문이죠! 페이즈는 위험하듯 소매를 걷어 올리고, 늑대 두목과 한 판 승부를 벌이듯이 결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상대방은 소리만 지르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겁쟁이인 줄은 몰랐지 뭐야.” 아스트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페이즈가 대답했습니다. “이젠 사악한 드래곤으로부터 페이즈랜드를 영원히 구하는 일만 남았어.”

“가능할까?”

페이즈는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마음 속에 새로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마이클 삼촌이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

안녕, 친구들! 페이지가 드디어 라이벌을 물리치고 아스트라와의 우정을 지켰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결단과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줬지요. 이제 모든게 페이지의 손에 달렸어요. 과연 우리의 영웅 페이지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용할까요?

페이지랜드에서 잿빛 늑대를 물리쳤을뿐 아니라,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을 무섭게하는 것이 있다면 페이지랜드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실제로도 그런 두려움을 영원히 없앨 수 있습니다.

마법의 왕국에서는 이 세상과는 달리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곳 말고 어디에서 우리가 호랑이, 새, 돌고래, 나비로 변신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동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어요? 의식이 깨어나는 그 신비로운 순간을 꼭 기억하고, 페이지랜드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모두 이뤄 보세요!



총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도서 주문

amazon.com®

기부

PayPal



3일만에 체험하는 자각몽 및 유체이탈 경험



WWW.OBE4U.COM/KR/



9

페이스랜드 창작 동화

타임머신 여행과 파라오왕의
비밀

(취침 전 추천 도서)

Michael Raduga 원작

Suki Park 번역

Andrey Goodkov 삽화

동화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최근 들어 페이지는 키도 많이 크고 정신력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늘 기분도 좋았고, 매일 아침 오트밀을 먹을 때면 무도 함께 더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사악한 드래곤 파우로부터 페이지랜드를 구하는 일만 머리속에 가득했습니다. 우선 드래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해답을 발견하면 파우의 약점을 발견해서 물리칠 수 있을 테니까요.

“파우는 왜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죠?” 아침을 먹으며 엄마께 물었습니다.

“파우? 새로 이사온 친구니?”

“아니요. 페이지랜드에 있는 드래곤이에요. 전에 말했잖아요!”

“아... 나야 모르지.” 엄마는 수상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페이지는 웬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짐작이 맞았네요.

“지금부터 거기에 다시 가지마. 명령이야!”
엄마께서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면 안 돼요? 얼마나 멋지고
재미있는데요!”

“엄마가 안 된다면 안 되는거야!”

착한 페이즈도 이번에는 엄마 말씀을
어겼습니다. 낮잠을 자는 동안, 페이즈랜드에
찾아갔습니다. 페이즈와 루드르는 버려진
헛간에서 타임머신을 발견했는데, 마치 미래의
스포츠카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시간을 선택하는 다이얼에서 가까운 표시를
눌러 타임머신을 설정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빛이 번쩍이더니, 친구들과 지구조차도
없는 머나먼 과거 속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그곳엔 오직 우주만 있었습니다. 너무 먼
과거로 떠나서 파우가 온 곳을 알아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낮잠에서 깨어난 페이즈는 친구들과 딸기를
따러 갔습니다. 숲속을 거니는 동안, 아스트라와
페이즈의 엄마는 아이들의 이상한 페이즈랜드
놀이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걸까?”
엄마한테 꾸중을 들은 아스트라는 슬펐습니다.

“너희들은 멍청한 몽상가들이야!” 산딸기
한줌을 입 안에 삼키며 오비가 소리쳤습니다.

“걱정 마. 방법이 있을거야.” 페이즈는 친구를
안심시켰고, 오비를 세게 한 대 때렸습니다.
오비는 산딸기에 목이 메일 뻔 했고, 화가 나 숲
속 다른 편으로 가 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때까지 계속 궁리했습니다. 페이즈는 엄마의 행동에서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 걸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페이즈는 엄마와 또 다른 대화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페이즐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누구니?” 엄마는 간간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루드르가 말해줬다고 해놔야요.”

“어디에 사는 애니? 집이 어디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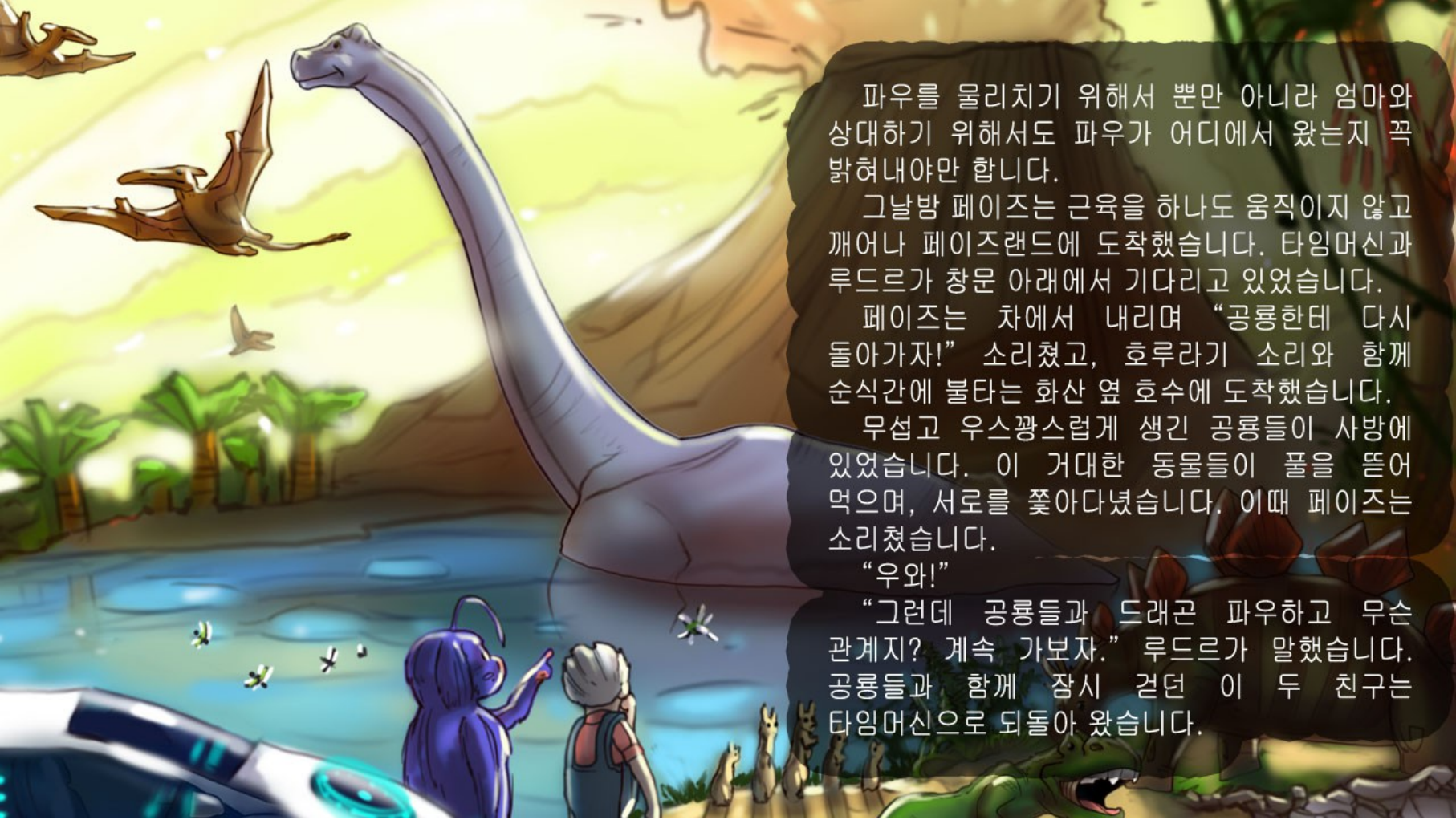
“하하하!”

“웃지마! 이제 루드르랑 얘기하지도 말고, 페이즐랜드에도 가면 안 돼! 알겠지?”

“하지만, 엄마...” 페이즈는 엄마의 말소에 반대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엄마의 말소에 바로 사악한 드래곤 파우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왜 파우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걸까요? 엄마야말로 그 사악한 드래곤이 아닐까요?





파우를 물리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엄마와
상대하기 위해서도 파우가 어디에서 왔는지 꼭
밝혀내야만 합니다.

그날밤 페이지는 근육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깨어나 페이지랜드에 도착했습니다. 타임머신과
루드르가 창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는 차에서 내리며 “공룡한테 다시
돌아가자!” 소리쳤고,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타는 화산 옆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무섭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공룡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동물들이 풀을 뜯어
먹으며, 서로를 쫓아다녔습니다. 이때 페이지는
소리쳤습니다.

“우와!”

“그런데 공룡들과 드래곤 파우하고 무슨
관계지? 계속 가보자.” 루드르가 말했습니다.
공룡들과 함께 잠시 걸던 이 두 친구는
타임머신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이때 다시 미래로 날아가기로 결정했고, 아마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파우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해줄 것 같았습니다.

타임머신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움직이고, 친구들은 어느새 높은 건물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 세계에 와 있어.” 페이지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파우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루드르가 제안했습니다.

이 두 친구는 타임머신을 카페에 주차하고,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안 머리에 냄비 같은 기계를 쓰고 있는 한 소년 옆에 섰습니다.

그 소년과 이야기를 나눈 후,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이 페이지랜드에 대해 알게 될 거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곳에서 매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파우에 대해 이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라고 실망한 이 두 친구들은 타임머신으로 다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지 생각하는 도중 페이지는 침대에서 잠이 깼습니다.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상상을 하자, 즉시 루드르가 있는 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고대 이집트에 와 있었습니다.

타임머신은 호루라기와 함께 순식간에 한참 만들어지고 있는 피라미드에 도착했습니다. 단호한 파라오 왕이 위엄있게 앉아 있는 마차가 갑자기 바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드래곤 파우는 누구죠?” 파라오왕은 페이지의 질문에 놀라며 “너희들은 몰라도 돼.”라고 대답했습니다.

“왜죠?”

“이 녀석들을 잡아라!” 파라오왕은 페이지와 루드르에게 소리치며, 전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화살과 창이 타임머신을 쏘는 사이 간신히 타임머신의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계가 고장이 났고, 타임머신은 멈춰 버렸습니다. 페이지와 루드르가 미래 세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파라오왕과 부하들이 피라미드 주변 사막 사이로 쫓아왔습니다.





페이즈는 탈출하는 도중 스프링스 조각상에 부딪혔고, 이 충격으로 인해 스프링스 머리가 파라오왕과 부하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날 좀 꺼내 줘! 그러면 모든 걸 다 이야기 해주겠다.” 파라오왕이 애원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먼저 이야기 해줘요.” 페이즈가 명령했습니다.

“저들이 보이니?” 파라오왕은 피라미드를 짓고 있는 수천명의 노예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들에게 그리고 저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드래곤이 필요해!”

“이유가 뭐죠?” 놀란 페이즈가 물었습니다.

“저들은 페이즈랜드에 가는 것을 무서워해서 대신 계속 노예로 남아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드래곤을 물리칠 수 있죠?”

“그는 존재하지 않아! 그냥 너희 모두 함께 와서 그를 물리치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페이즈가 간신이 질문하는 사이 타임머신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해 순식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속을 여행하는 동안 루드르는 파우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겁을 주는지 페이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아침식사를 하던 페이지는 영리하게 엄마한테 질문했습니다.

“악몽을 꾸는 동안 꿈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너 또 시작이구나. 물론이지. 그런 적이 있단다.”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알고보니 아직도 잠자고 있는 적도 있었나요?”

“어제 그런 경험을 했단다.”

“그렇다면, 엄마도 페이지랜드에 가본 거예요!” 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이 신비로운 일들은 바로 “페이지랜드”이며, 모든 사람이 그 곳에 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페이지의 말에 매우 놀랐고,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페이지와 아스트라는 사악한 드래곤과의 한 판 승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삼촌이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

안녕, 친구들! 이제 타임머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타임머신을 사용해 미래와 과거로 떠나는 방법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친구 페이즈처럼 꿈 속에서 공룡도 보고, 공룡과 나란히 걸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의 영웅들은 파우가 누군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냈습니다. 여태까지 들려준 다른 모든 모험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도 사실입니다. 페이즈랜드의 사악한 드래곤은 바로 모든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미래에 대한 공포입니다. 페이즈랜드로 들어가는 걸 막는 공포만 없었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페이즈랜드를 여행하고 있었겠죠.

이제 우리의 친구들 앞에는 큰 한 판 승부가 남아있습니다. 친구들이 파우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럴만한 힘이 충분히 있을까요? 이제 곧 모든 사실이 밝혀집니다! 다음 모험을 기다리는 동안, 마법의 페이즈랜드 왕국과 의식에서 깨어나는 그 신비로운 순간을 꼭 기억하세요.



총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도서 주문

amazon.com®

기부

PayPal



3일만에 체험하는 자각몽 및 유체이탈 경험



WWW.OBE4U.COM/KR/



10

페이스랜드 창작 동화

사악한 드래곤과의 마법같은
한판 승부, 그리고 아스트라와의
우정

(취침 전 추천 도서)

Michael Raduga 원작

Suki Park 번역

Andrey Goodkov 삽화

동화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며칠 전, 페이지는 마법사에 관한 책을 읽는 도중, 마법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페이지랜드에서 이 마법을 사용해 드래곤을 물리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페이지는 갑자기 아스트라에게 뽀뽀를 시도하다 빵을 맞고, 그 후로는 아스트라 옆에 가는 것조차 겁이 났습니다. 여자애들은 좋아하는 남자애들한테 가끔 그런다는 걸 순진한 페이지는 몰랐던 것죠.

“아스트라는 왜 뽀뽀를 안 해주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오토밀 아침식사를 먹던 중 엄마에게 여쭙봤습니다.

“뽀뽀하기에 아직 너무 빠른거 아니니?”

“불에 뽀뽀하려는 건데요 뭐!”

“어머머”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뽀뽀를 하려면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해.”

파우를 물리친다면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아, 엄마의 아이디어가 맘에 들었습니다.





의식이 깨어나는 그 마법의 순간, 아스트라와 루드르가 보였습니다.

“루드르, 페이즈랜드에서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사악한 파우는 사람을 도와주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만져보고 다 뒤져야겠지...” 꼬마 드래곤이 이렇게 말을 꺼내는 순간 하늘이 붉게 변하고, 그곳에서 파우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저기 있다! 지금 작전 개시!” 흥분한 아스트라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을 도울 수 없는 루드르는 있는 힘껏 재빨리 숨었습니다. 페이즈와 아스트라는 양쪽에서 불을 뿜는 드래곤을 포위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때 파우는 투명한 전기공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계획은 이 큰 공을 분자 크기로 가장 작게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파우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고, 공이 점점 얇아지더니, 그만 터지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성난 파우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페이지와 친구들은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스트라는 계획이 실패해 화가 났고, 페이지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아직 어려. 아직 힘이 부족해.”

“더 좋은 계획을 세웠어야지!” 아스트라가 쏘아붙입니다.

실컷 웃던 오비는 말을 끼어들며 “너희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말싸움까지 하는구나! 아니면 진짜로 싸우는 거니?!”

페이지와 아스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비꼬는 농담 따위는 무시하는 게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비가 물고기를 잡자, 두 친구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오비가 자신들을 믿어주지도 않고, 물고기까지 더 잘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오비는 계속 두 사람을 놀렸습니다.

“내가 최고야, 너희들은 멍청이!”

페이지와 아스트라도 물고기를 잡고 싶었습니다. 다른 낚시꾼들이 오비를 칭찬하자, 두 사람은 샘이 났습니다.





작은 잉어라도 잡고 싶었던 페이지는 계속 낚시찌만 바라봤습니다.

“아스트라, 바로 그거야! 방법을 알아 냈어!” 갑자기 낚시대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데?”

“바로 오비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비라고!”

이해할 수 없는 아스트라는 처음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기쁨에 광충광충 뛰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오비를 데리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증명하고 싶지?”

“다 가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오비가 쏘아붙입니다.

“증명할 수 있다면, 네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게.”

오비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때까지 오비가 맞다고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이지의 계획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만약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가능할 거야! 페이스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오비와 같이 페이스랜드에 가면, 사악한 드래곤에 맞설 마법의 힘이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비는 밤새 한 잠도 못자고 페이스랜드에 들어가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방법을 따라 모든 시도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의식이 깨어나는 그 마법의 몇 분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한테는 소용이 없잖아. 결국 네가 진거야!” 다음날 오비가 말했습니다.

“오늘 다시 해봐.” 페이스는 친구를 설득했습니다.

“소용없다고!”

“내가 나중에 볼에 뽀뽀해 준다면?” 아스트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포기하는 오비. 이 불쌍한 소년은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페이스는 아스트라의 께에 기분이 상했지만, 어쨌든 모두를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겠죠!





그날 밤 오비는 마치 목숨을 걸듯이 페이즈랜드에 들어가기 위해 다시 노력했습니다. 페이즈랜드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로 부족한 결단과 자신감도 났습니다.

“오늘 밤에 해낼거야. 그러면 아스트라가 뽀뽀를 두 번 해주겠지!” 오비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식이 깨어나는 마법의 순간, 오비는 온갖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 친구들과 페이즈랜드에 가 있었습니다. 잘 되지 않을 때는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공중에 몸을 띄웠습니다.

“오호호!” 오비가 소리쳤습니다.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 보며 놀랐습니다.

페이즈랜드에 너무 놀란 오비는 뽀뽀 약속도 까맣게 잊고 드래곤을 물리치려는 친구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결투의 순간이 드디어 다가왔고, 친구들은 다시 페이즈랜드에 모였습니다. 사악한 파우로부터 마법의 왕국을 해방시켜 세상 사람들을 도와줄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친구들은 성난 드래곤을 포위했고, 이번에는 마법을 사용해 못된 파우를 착한 나비로 변신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파우는 고작 색깔만 변했습니다. 이따금씩 잠시 코끼리로 변하다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너희들은 할 줄 아는게 없어!” 친구들을 불에 태우려고 하면서 드래곤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에 맞서 친구들은 파우에게 번개를 내려 쳤습니다.

“녀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아스트라가 눈치챈습니다.

“도망쳐!” 가능하면 빨리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면서 오비가 말했습니다.





파우는 정말 점점 더 커졌고, 힘도 세졌습니다.
이때 페이즈한테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두려움에 도망치는 친구들에게 소리치며
“빨리! 드래곤한테 달려가서 껴안아줘!”

“말도 안 돼!” 아스트라와 오비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우리랑 싸울수록 더 커지고 강해지는데, 만약
껴안아 주면 어떻게 될까?” 페이즈는 파우를 껴안기
위해 가까이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겁이 난 드래곤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친구들 모두 파우를 껴안았습니다.
결국 드래곤은 훌쩍이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파우 대신 네 친구들이 서로를 얼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축제가 시작! 기뻐하는 친구들을
위해 페이즈랜드의 주민들은 꼬마 공룡 루드르를
새로운 대장으로 뽑았습니다.





다음날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들은 기쁨에 강총강총 뛰었습니다. 아스트라는 드디어 페이지의 뺨에 뽀뽀를 하고 매일 같이 함께 놀기로 했습니다.

페이지랜드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게된 오비는 친구들로부터 페이지랜드로 들어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루드르는 초록색이지, 자주색이 아니야.”

“그렇리가! 초록색이고 털복숭이야” 페이지가 대꾸합니다.

“털복숭이도 아니고, 비늘이 있어!”

“이 멍청이들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두 사람의 말싸움에 끼어들며 아스트라가 똑똑하게 설명했습니다. “페이지랜드에서 원하는 걸 모두 얻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마이클 삼촌이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

안녕, 친구들! 진한 우정이 있다면 어려움과 불행을 함께 극복할 수 있어요. 놀라운 모험은 이제 끝났지만, 우리의 영웅들은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왜냐하면 페이즈랜드에서 꼬마 공룡 루드르와 우리의 친구 페이즈, 아스트라, 오비를 모두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못된 파우는 완전히 패배했고, 그곳에는 우리를 방해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페이즈랜드는 하늘을 날고, 아이스크림만 먹는 곳 만은 아니라는 사실 꼭 잊지마세요. 그곳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울수도 있고,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도 있으며,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특기도 개발할 수 있고 여행도 떠나고 여기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도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의식이 깨어나는 그 마법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두 개의 세상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세요!



총 10편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WWW.PHASIELAND.COM/



도서 주문

amazon.com®

기부

PayPal



3일만에 체험하는 자각몽 및 유체이탈 경험



WWW.OBE4U.COM/KR/